

여 씨

여성이 살리는 세상

2014년 제 2호

세월호 시대,
생명돌봄을 말하다

강남순, 최만자

돌봄노동의 얼굴을 마주하다

돌봄의 별에서 온 그대, 여성!!

정신희

성별화된 돌봄노동의 주변화와 평가절하
박홍주

남녀임금격차, 현실 그리고 남겨진 과제
김은경

돌봄노동과 기사노동자의 건강권
문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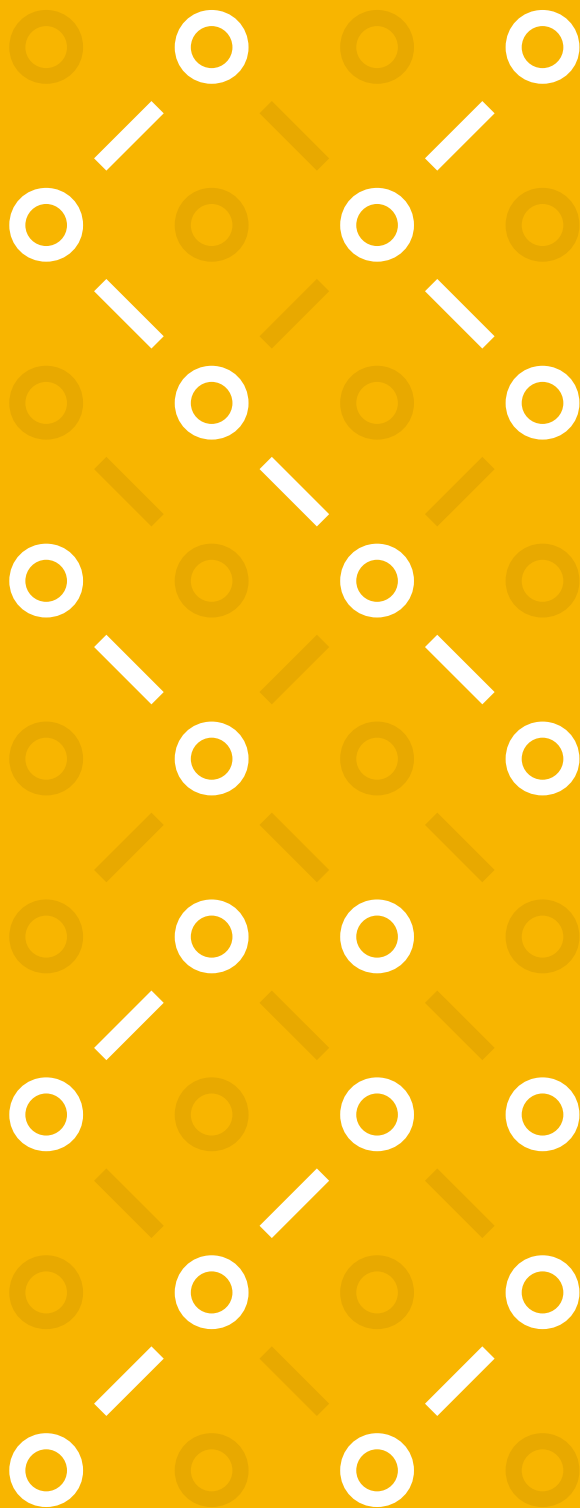
생명과 돌봄, 출발선에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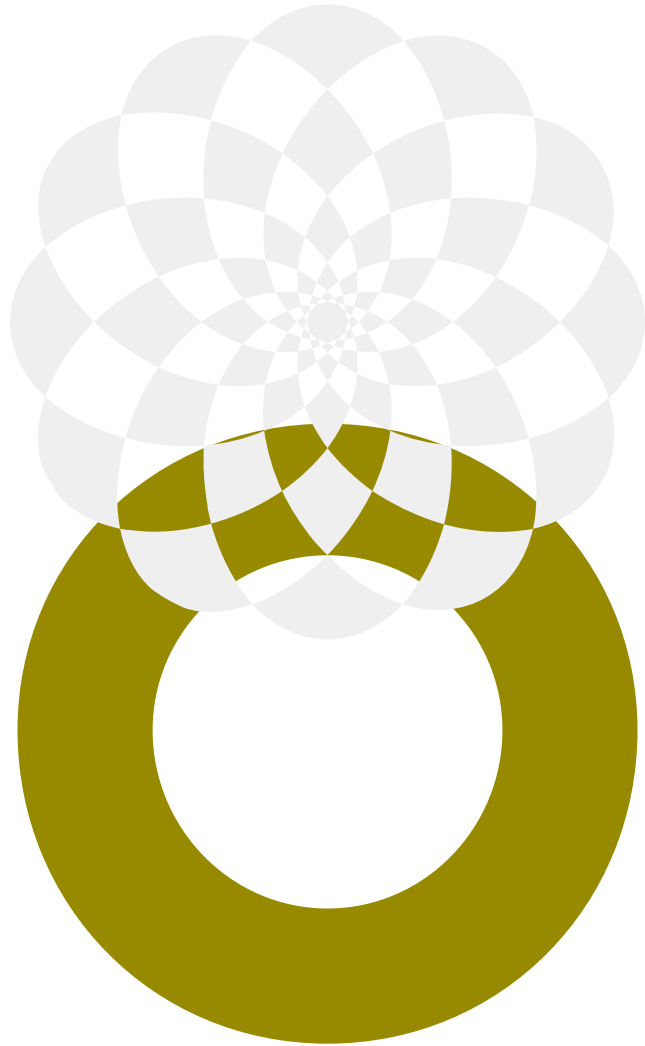
곽지영, 정재훈

좌담회 : 돌봄 실천 현장의 소리

시대와 함께 삶과 함께

차경애, 김은희, 정서연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이 살리는 세상
2014년 제2호

4 **퍼내는 말**
서로 돌보는 세상을 위하여

김기동

세월호 시대, **생명돌봄**을 말하다

8 **총론 세월호-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명-돌봄'의 그 복합적 의미에 대하여
21 세월호 시대, 성서적 돌봄윤리의 절박한 요청

강남순
최만자

돌봄노동의 **얼굴**을 마주하다

34 돌봄의 별에서 온 그대, 여성!
46 성별화된 돌봄노동의 주변화와 평가절하
58 남녀임금격차, 현실 그리고 남겨진 과제
71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자의 건강권

정신희
박홍주
김은경
문현아

생명 **고** 돌봄, **출발선**에 서다

84 YWCA 돌봄회원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인권
101 보편적 복지로서 돌봄의 제도화

곽지영
정재훈

좌담회 : 돌봄 실천 현장의 소리

116 생명을 살리는 돌봄사회로 가는 길을 찾아서

강성구 외

시대 **안** 함께 **삼**고 함께

YWCA운동의 과거와 현재

132 한국YWCA 돌봄직업훈련의 역사
140 YWCA 여성직업훈련, 의미와 전망

차경애
김은희

YWCA 운동 실천 현장

149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을 아우르다

정서연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세』
2014년 제 2호

발행일 2014년 11월 25일
발행처 (사)한국YWCA연합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전화 02-774-9702~4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편집위원장 김기동
편집위원 김은경, 이은영, 홍승표
편집 박은실, 이윤숙, 이주영, 정서연
편집디자인 안그래픽스 미디어사업부(02-763-2303)
인쇄 알래스카인쇄소
ISSN 2289-0254
정가 12,000원

서로 돌보는 세상을 위하여

김기동
『여·세』편집위원회 위원장

2014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남겨 주었습니다. 4월 16일 10시 쯤 버스 안에서 세월호 소식을 처음 듣고 얼마 후 전원 구조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그냥 또 스쳐가는 하나의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 기가 막힌 오보와 함께 이 날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충격적인 날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나흘 뒤 부활절의 기쁨, 그 아름다운 봄의 향연을 누릴 여유도 없이 우리 사회는 검은 빛의 애도 현수막들 사이로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누구도 웃을 수 없었고 누구도 살아있음을 축하할 수 없는 절망감, 300여 명의 주검,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이 있기에 누구도 아픔을 소리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충격은 비단 꽃다운 학생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이없게 국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마비되어 있었고, 죽음의 땅에서 발뺌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월호와 함께 그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공공 사회가 침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총체적 부실과 부조리,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나만 살기 급급한 우리 사회의 불의하고도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따져 보려 하지 않고 그저 또 그 민낯을 외면하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죽을 만큼 아픈 사람한테 이젠 신음소리를 그만 내라고 합니다.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해 그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른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넘쳐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만한 사람이라 여겨지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 욕망에 가득 찬 개인들의 집단이 되어버린 채 공공적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살만한 사회는 공공성의 차원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공공성의 상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세월호 사건은 공익, 공정, 공개 그리고 시민성이 말살된 신자유주의 경쟁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죽임과 폭력으로 물들게 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지요. 그런 점에서 세월호 사건은 절망을 넘어 잃어버린 가치를 각성하고 회복할 때 우리 사회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치,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혼자보다는 함께 살아가는데 익숙하다는 소리지요. 공동체성,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경쟁을 넘어서서 돌보며 약자와 소외된 자를 세울 줄 아는 사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망각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가치 들입니다.

『여·세』 2호는 이런 점에서 세월호 사건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 고통과 무기력, 그리고 갈등에 빠진 우리 사회를 새로이 세울 토대로 ‘돌봄가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봄’이라는 주제는 이미 사회복지 차원에서 거론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돌봄 담론은 국가정책도 마찬가지로 돌봄의 대상, 돌봄의 효용성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

제는 돌봄이 과연 특정 대상으로 한정되어 정의될 수 있느냐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는 이 사회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에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이번 『여·세』는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누가 돌보는가? 돌봄의 주체와 대상은 고정적인가? 돌보는 이가 혹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누가 주로 돌봄 활동에 관여하는가? 가사, 산후, 아기돌보미의 영역은 분명 돌봄노동시장에 실재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동법에 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돌봄노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디딤돌입니다. 그럼에도 돌봄노동자들은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한편으로는 희생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또 한편으로는 경력 불문의 값싼 노동력으로 팔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번 『여·세』는 돌봄노동이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2014년 겨울, 우리는 무엇보다도 돌봄이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 돌봄과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논리에 의해 비용이나 투자나 하는 낡은 이분법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지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주춧돌로서의 돌봄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되고 공적 영역으로 인정됨으로써 생명살림과 생명존중이 사회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세월호-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명-돌봄’ 그 복합적 의미에 대하여

강남순 /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 교수

1. ‘사고’를 넘어서서, ‘사건’으로서의 세월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events)’ 과 조우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는 폭력이나 테러에 의하여 야기되곤 한다. 그래서 어떤 이론가들은 이 21세기를 ‘테러와 폭력의 시대’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사건’은 단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fact)’로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그 ‘사건-이전’과 ‘사건-이후’에 분명한 관점의 변화가 존재할 경우이다.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에게도 타자와 사회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사건’만이 아닌 ‘사회적 사건’이 된다.

예를 들어서 ‘사건’으로서의 홀로코스트(Holocaust)는 단지 독일

나치의 참혹한 말살정책에 희생된 유대인, 성적소수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인류의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건 ‘이전’과 사건 ‘이후’에 인간과 신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 온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사건은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는 중요한 개념을 태동시킨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2001년 9월 11일이 역사 속에서 잊혀질 수 없는 ‘9-11 사건’이 되었다. 이 ‘9-11 사건’이 단순한 사고나 사실로만의 의미를 넘어서서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미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식이나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9-11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변화의 획을 긋는 의미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세계 정책들에 직·간접적인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사회적이기만 하거나 또는 정치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월호-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월호-사건은 한국의 정치적 책임성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연대의 의미에 대하여, 종교적 실천의 의미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 신의 현존과 역사함, 또는 교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조차 매우 상충적인 이해들이 드러남으로써, 고유명사로서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종교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공공의 선’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 자본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회사의 이득을 그 배에 타는 인간들의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삼은 정부의 정책들로 인한 안전규제의 완화에 원인이 있다. 또한 사고가 벌어진 후, 모든 이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할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의 책임

의식의 부재와 이기성, 더 나아가서 모든 구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관료들과 조직들의 수장의 무책임한 행정 등으로 인하여 구조되었을 수도 있는 생명들이 무참히 처절한 죽음을 고통스럽게 당해야 했던 ‘참사’가 되어 버렸다.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야 했던 가족들의 고통과 절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그 세월호-사건은 생명-돌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 실천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들을 주고 있는가.

2. 진도 팽목항 죽은 자들의 현존

내가 진도 팽목항을 찾아 간 것은 2014년 7월 말이다.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하던 3주간의 한국일정은 강연과 이런 저런 약속들로 꽉 차 있었지만, 내가 한국에 와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언니의 딸, 나의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더운 한여름에 치른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언니 가족들과 함께 내가 평소애 가고 싶어 하던 해남 땅끝 마을로 향하는 며칠간의 여행길에 나섰다. 해남으로 향하는 여행길에 나는 조심스럽게 “우리, 가는 길에 진도항에 들리면 좋겠는데……”하고 차안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간적으로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나와 두 언니, 그리고 조카를 포함한 네 여성들의 여행을 위해 휴가를 내어 기꺼이 운전 해 주겠다고 우리와 함께 여행길에 나선 형부가, 그 순간적 침묵을 깨면서 “그러지 뭐. 예정한 길에서 조금만 돌아가면 되니까”라고 분위기를 돌리며 나의 조심스러운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다(나중에야 ‘조금만’ 돌아가서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

소 알아차렸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아오던 팽목항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것이 실제로 그 무수한 생명들을 앗아간 공간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검푸른 바닷물 속에 삼키워진 생명들, 그 생명들이 혹시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부여잡고 무수한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을 가족들은 이 팽목항에서 무엇을 느끼며 경험하고 있었을까. 주차장을 지나서, 아직도 찾지 못한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텐트들을 지나가는데, ‘신원 확인소 가는 길’이라는 팻말이 나타났다. ‘신원 확인소’—그 확인소는 삶에 대한 한 줄기 기대감과 동시에 죽음의 확인에 대한 처절한 절망감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그 지독한 패러독스적 슬픔의 공간을 드나들던 가족들, 친구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워질 수 없는 슬픔의 응어리들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야 한다. 노오란 리본들과 이름들이 쓰여진 종이들이 매달려 나부끼고 있는 부둣가에 이르니, 내 마음에 울컥하는 응어리를 올라오게 하는 장면이 보였다. 부둣가 곳곳에 놓여 있는 신발, 라면, 쌀, 소주, 과자, 김, 콜라, 꿀, 옥수수—살아있는 이들이 그 칠혹 같은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죽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 남겨놓은 그 물건들은 ‘죽은 자들의 현존’을 절절히 느끼게 해 주고 있었다.

이 지극히 평범한 음식들과 물건들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 무수한 생명들이, 이 검푸른 바닷물 속에서 끔찍한 죽음 대신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 세월호와 진도 팽목항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는 지금과 전적으로 달랐을 것이 아닌가. 구조 받을 수도 있었을 생명들이 죽어간 이 세월호-사건 앞에서 살아남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치스러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너무나 조출한 일상의 물건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무엇인가.

3.

세월호 사건이 준 생명 돌봄의 그 복합적 의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돌봄’이라는 개념을 매우 단순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그리고 낭만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 즉 ‘생명’과 ‘돌봄’이라는 것이 지닌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사랑의 문화를 창출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생명은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모토가 단지 낭만적인 구호로만 남게 될 때, 인간생명이든 동물생명 또는 자연생명이든 모든 생명들이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가치체계와 구조들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한다. 또한 ‘돌봄’이라는 개념도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이해될 때에는 그 ‘돌봄’이 지닌 사회정치적, 제도적 차원과의 연관성을 간과함으로써 사실상 ‘생명-돌봄’이라는 그 소중한 의미를 구체적인 현실세계 속에서 실천해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생명이 생명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삶의 조건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생명-돌봄이라고 규정할 때, 생명-돌봄이란 인간 삶의 측면들인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세월호 사건은 생명-돌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인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본다.

1) 생명-돌봄은 ‘시혜’가 아닌 ‘책임’의 문제이다.

생명-돌봄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종종 빠지는 오류 중의 하나는 이들이 약자들에게 구제 행위나 시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해를 하는 점이다. 그러나 생명-돌봄이란 어떤 약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수행

한다는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돌봄’을 다른 약자에게 시혜나 구제를 베푸는 것으로 이해할 때, 거기에는 돌봄의 대상과 돌봄을 시행하는 사람 사이의 ‘윤리적 위계주의’가 형성된다. 즉 베푸는 이는 윤리적 우월성을, 시혜를 받는 이는 윤리적 열등성을 암암리에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돌봄은 이 세계의 구성원,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생명들에 대한 ‘책임’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 책임성이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의 생명들과 다가올 미래의 생명들에 대하여 그 돌봄의 범주를 확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생명-돌봄이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확보되고 또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자신들의 책임의 문제로 자리잡게 될 때 진정한 생명-돌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세월호 유족들과의 연대를 통한 생명-돌봄은 그들을 위하여 베푸는 ‘시혜’가 아닌 ‘동료인간’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2) 생명-돌봄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사회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이다.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요청되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다. 진정으로 생명-돌봄의 의미는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는 물론 그 생명이 지닌 이 사회에서의 다양한 역할들, 잠재성 또는 가능성을 활짝 꽃 피우게 하는 사회정치적 조건들이 마련되는 것에 지속적이고 책임적인 관심과 헌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생명-돌봄의 다차원적 이해의 가치체계를 마련해 주는 종교적 가치들은 그 생명-돌봄의 의미에 대한 인식론적 전거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생명-돌봄의 행위란 참으로 복잡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의 삶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영역들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생명-돌봄을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 그리고 낭만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생명-돌봄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행위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빈곤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건인 거주, 질병 그리고 식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차원의 장기적 대책은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의 돌봄의 역량을 벗어난 이와 같은 일들은 국가가 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교육혜택, 주거 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돌봄에 의해서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즉 한 개인이나 집단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돌봄이란 사회정치적인 차원의 문제와 언제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간생명 뿐 아니라 동물, 식물과 같은 생명을 파괴하는 생태문제, 핵문제, 전쟁문제 등은 한 개인의 사적 행위로서의 생명-돌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 개인들이 포괄적인 의미의 생명-돌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치가를 지지하고 선택하는가, 종교인들이라면 어떠한 신 이해를 갖는가(정복적인 신인가, 아니면 사랑과 정의의 신 이해를 갖는가), 또한 어떠한 생명들의 돌봄을 지향하고 있는가 등에 따라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요청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가의 정책이 가난한 생명들, 다양한 이유로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인가, 생태적 정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인류 생명의 보존을 위협하는 핵문제 등에 대한 이

해나 정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돌봄'이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사회·정치적인 차원의 문제들에 대하여 매우 예민한 촉각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인간생명을 돌보는 차원에서 젠더, 인종, 종교, 성적 성향 등에 의하여 차별받고 소외되는 생명들에 대한 돌봄의 사회문화적이며 종교적인 의미까지 생각해야 한다. 종교적 교리나 관습 등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성적 소수자들과 같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 차별, 희롱 등은 결국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3) 생명-돌봄은 생명의 위계주의에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종종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정언이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세계 속에서 어떻게 외면되고 파괴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체 생명계를 살펴보면, '인간 생명 > 동물 생명 > 식물 생명'이라는 커다란 위계주의가 이미 고착되어 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 생명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보면, 성별, 인종, 국적, 언어, 피부색, 성적 성향, 육체적/정신적 능력, 나이 등에 따라 다양한 위계주의가 이미 설정되어 작동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같은 국가에 속한 국민들 사이에도 엄연한 위계와 등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만약 그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처참하게 죽은 304명이 정부 고위 관료들이었든가 또는 부유층이었다면 또는 그러한 지위와 특권과 부를 지닌 이들의 아들, 딸과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이었다면, 3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구조 받을 수 있는 '골든 타임'에 무참히 외면되고 결국에는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어야 했을까? 무고한 죽음을 포함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개인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언제나

개인적, 집단적, 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권력'구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권력이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다양한 종류의 권력은 언제나 '생명-돌봄'의 제도적 장치와 실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생명-돌봄이란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 속에 '자연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크고 작은 '생명의 위계주의'에 대하여 비판하고 저항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난한 집안의 생명이 부유한 집안의 생명보다 덜 가치가 있다든가,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생명보다 덜 가치가 있다든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지닌 이들의 생명이 소위 '정상적'인 몸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 보다 덜 가치가 있다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생명 위계주의'를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이 생명-돌봄에 요청되는 것이다.

4) 생명-돌봄은 '그들'이 결국 '우리'라는 인식을 통한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세월호-사건은 '생명-돌봄'이라는 거대한 모토를 추상적이고 낭만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정황들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필연성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생명-돌봄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상상력'을 통한 연대의 행위가 요청된다. 이 인식론적 상상력이란 '나/우리-너/그들'이라는 이분법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불가결한 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만약 그 죽은 아이들 중에 꽃같이 화사한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린 '나'의 조카가 있었다면, 바로 그 '나'의 조카가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점점 올라오는 물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죽어가야 했다면, 나의 언니와 그 가족들에게서 '세월호-이전'과 '세월호-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구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의 줄을 서서히 놓으며,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들과 딸이, '나'의 가족들과 친척이 그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면 생명-돌봄의 의미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그리고 이제 자식의 죽음을, 가족의 죽음을 매 순간 떠올리며 살아야 할 운명 속에 놓인 살아남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 '우리'라면, 진도 팽목항은 어떠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을까. 또한 도대체 왜 충분히 구조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구조되지 못했는가를 알고자 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단식하며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된 '우리'에게 광화문 광장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세월호 참사에서 죽어간 그 304명의 얼굴 속에서, 그리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실종된 9명의 얼굴 속에서, '그들'이 아닌 '우리'의 아들, 딸, 부모, 조카, 가족의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은 동료 인간으로서의 엄숙한 '책임감'이며, 이러한 책임성이야말로 종교의 존재 의미가 된다. 동시에 이러한 '상상력'을 통한 진정한 연대의 마음과 행위야말로, 극도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의 생명 파괴적 삶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따스함과 연민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생명-돌봄'의 세계로 남아있게 하는 진정한 종교적 행위라고 나는 본다.

4. 생명 돌봄의 궁극적 목표: '함께 살아감'의 사회를 향하여

생명-돌봄이 지닌 의미란 결국 다양한 생명들의 '함께-살아감'

에 있다. 이 ‘함께-살아감’이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함께-살아감’이란 생명들 사이에 정의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관계들이 가능한 방식으로서의 ‘함께-살아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생명-돌봄에서 요청되는 것은 다양한 양태를 지닌 ‘생명-파괴’적 제도, 가치, 구조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요청된다. 더 나아가서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내고, 지켜 내고,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실천적 헌신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만약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돌봄’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국가가 되도록 무책임한 정치가들을 뽑고 있다면, 한 개별인들이 아무리 생명-돌봄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도 그 생명-돌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세월호-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었다.

2014년 9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전영관 시인이 낭독한 자작시 <밥이라도 한 그릇>은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와 그 죽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남아야 하는 이들과의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돌봄의 의미인가를 보여 준다.

휘청거리는 오월이다
 뒷산 비탈에서 아까시 향기가 흘러내린다
 첫새벽에 퍼담은 향기로 쌀을 씻어 안친다
 푸른 불꽃이 파도의 몸짓으로 술을 어루만진다
 펄펄 끓는 오월, 까무룩 혼절하듯 잤아지며 땀 드는 오월이다
 햇살보다 잘 퍼진 이밥 한 그릇 고봉으로 담아 올린다
 안산에서는 오월도 가난하다
 저녁상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오월이다

다 끝내고 삼우제 치르느라 지어 올린 고봉밥만 혼자 식는다
 부모가 유명을 달리해도 삼일을 기다리다 염을 하는데
 시신이 행여 숨을 되찾아 움직이면 쉽게 플리도록 결박하는데
 젖어 돌아온 목숨
 혹시 모르니 기다리자고 울부짖지도 못하게 망가져 돌아온 목숨
 서두르지 않아도 서두른 셈이어서 남은 자는 서럽고
 돌아와도 서럽고 다시 또 보내려니 참혹한 목숨
 그날 이후로 기울었던 달도 차오르는데 너는 없다
 서둘러 왔어도 늦어버린 이팝꽃이 죄없이 죄스럽다고 만발했다
 고봉밥, 고봉밥, 끼니를 제때 때워본 적 없는 영혼들의 고봉밥이
 노제(路祭)도 없이 지나간 길가에 혼자 뜨겁다
 상에 올린 밥이 식었으니 대신하라고,
 식지는 않을 밥이라고 이팝꽃 만발했다
 고봉밥, 고봉밥 그득한데 남은 자도 떠난 자도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

이 시는 죽은 이들이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현존’하고 있는가라는 ‘죽은 자들의 현존’을 참으로 아프게 드러낸다. 생명의 ‘출생’과 ‘죽음’은 우리의 일상세계 속에서 언제나 일어난다. 그런데 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출생과 죽음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 ‘반복성’과 ‘유일성’이다. 매일 어디에선가 생명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실’은 반복되는 것이지만, ‘사건’으로서의 출생과 죽음은 그것과 연계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그 ‘반복성’에도 불구하고 ‘매 죽음마다 세계의 종국the end of the world’인 ‘유일무이한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불감증은 우리의 사유와 감

세월호 시대, 성서적 돌봄윤리의 절박한 요청

최만자 /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여성신학자

성의 세계를 마비시키면서, 타자들의 죽음과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위험한 ‘생명-과괴적 질병’과도 같다. 또한 타자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무관심이나 불감증은 한 사회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생명-돌봄’의 그 중요성과 복합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다. 국가를 포함한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이 모든 제도와 체제들의 존재 이유란 궁극적으로 보면 ‘함께-잘-살아감’이다.

진정한 생명-돌봄을 통한 ‘함께-잘-살아감’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명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엄숙한 책임이며 의무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 속에서 죽음을 당한 생명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경험하는 언어 너머의 상실을 함께 애도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은 지금 살아남은 자들이 먼저 간 사람들의 삶까지 ‘살아내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들’을 ‘우리’로 끌어들이므로써 이 생명-돌봄의 의미를 확장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명-돌봄의 포괄적인 의미가 바로 세월호-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깨우침이며, 이러한 깨우침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상기시키고 그 깨우침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것이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자들로서의 책임이다.*

글을 쓴 강남승은 현재 미국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의 교수로 재직중이다. 최근 저서로는 『코즈모폴리탄 신학 (Cosmopolitan Theology)』, 『디아스포라 페미니스트 신학 (Diasporic Feminist Theology)』 등이 있으며, 세계신학교육기관 협의회 회장으로서 일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등 다양한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YWCA의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1. 세월호 시대, 돌봄윤리 요청의 현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생명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요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곳이 혹시 지옥이 아닌가?’라는 의문조차 들게 한다. 사망에 죽임의 현상들이 둘러싸고 있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안감마저 든다.

우리사회 불의가 뭉쳐져 생긴 암덩어리 때문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생명위기 시대의 근원적 원인으로 올라가면, 삶의 최우선적 가치를 돈에 두고 소유에 목적을 둔 삶의 방식을 볼 수 있다. 생명보다 돈이 우위를 차지하는 세상이 되었고 자본 중심, 자본 지배의 사회는 물질화, мам몬화 되어 심각한 빈부 양극화를 초래했다. 자본가들은 혈안이 되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착

취하면서 자본의 축적을 이루려 했고,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경쟁과 부정도 불사하는 죽임의 삶의 방식이 우리 모두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 자본을 더 쌓기 위한 과적, 선박의 불법개조, 이를 감시하는 권력과의 유착으로 생명의 안전은 깡그리 무시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 국가와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라보아야만 이 사건의 배경과 원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생명위기 시대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성서적 돌봄윤리에서 찾고자 한다.

피셔와 트론토(Fisher and Tronto)는 돌봄을 본능적(전정치적)이거나 희생적(초정치적)으로 규정한 방식은 남성 중심적 역사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규정이라고 하면서, 보살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돌봄은 우리가 가능한 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고쳐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인간) 유적 활동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몸, 우리의 자아, 우리의 환경이 포함되며, 돌봄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복합적인, 생명-지속적인 그물로 짜여지기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돌봄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때 사회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 인간에게 보살피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심적인 교육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돌봄윤리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찾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2. 돌봄에 대한 성서적, 여성신학적 이해

신학적 논의 안에서 아직도 돌봄신학은 발전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자료들도 매우 부족한 상태다. 필자 나름대로 생각한 돌봄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그동안 여성신학에서 논의된 내용들의 일부를 돌봄과 연결하여 정리하였다.

1) 창조질서로서의 돌봄- 태초에 돌봄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1:1-2)

창세기는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드러내는 기록이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선포한 기록이다. 그런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표현은 매우 독특하다. 주석에 의하면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기적을 낳으려는 새처럼 만물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신명기 32장 11절의 기록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 흔들고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라며 부를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31장)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준다. 그 가운데 한 절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들을 보살폈는가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같은 돌봄(보살핌)의 행위가 태초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보살핌의 질서 안에 있고, 모든 피조물은 동시에 상호 보살피는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 바로 앞 절 10절에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다”고 노래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는 행위는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갈 때 행하신 은총의 행위로 지극히 모성적 보살핌을 실행하고 있다.

태초에 있었던 돌봄은 인간존재의 양태가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돌봄을 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창세기 1장 26~28절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위의 온갖 짐승들을 돌보게 하기 위하여 창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창세기의 인간창조 이야기에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 기독교의 자연이해가 자연 통제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만, 인간창조가 온 만물을 돌보라는 ‘칭지직적 책임’을 준 것으로 재해석되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예수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또한 지극한 예수의 사랑과 보살피는 사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은 돌봄의 영이고 우주 만물은 돌봄에 의해 생명을 얻고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곧 창조질서이다.

2) 돌봄에 대한 여성신학적 이해

돌봄을 주제로 특정하게 여성신학적 관점을 제시한 부분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성신학이 대두하면서 처음부터의 관심은 ‘하나님의 모성적 차원’을 성서로부터 밝히는 일이었다. 1967년 메리 데일리 Mary Daly가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Beyond God the Father』를 발표하면서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하나

님에 대한 전통적 이해가 비판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기독교 하나님 이해는 남성적 이미지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상징으로 채택함으로써 남성 우월/여성 열등, 하나님-남성 성직자-남성 평신도-여성이라는 위계질서를 교회제도와 그리스도인의 인식과 기독교 인간학, 그리고 전통교리와 신학에 뿌리 깊게 각인 시켰음을 비판한 것이다. 이런 제도와 질서 안에서 여성안수가 불허되고 여성의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동시에 남성에 대한 복종을 내면화하는 복종적 영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 상징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의 재상징화(New symbolize, New Naming)를 시도하게 하였다. 기독교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장적임을 폭로하는 입장과 기독교 하나님이 결코 그 본질이 부장적이지 아니고 그간의 해석이 잘못되었으므로 성서로부터 비부장적 하나님을 찾아내려는 새로운 관점들이 제시되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모성적 이미지들을 밝혀내면서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여성의 특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성서구절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4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이라고 하고 43장 1절에서도 ‘너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이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과정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돌보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머니의 전형적 모습이다(민수기 11장).

또 호세아서 11장 3절에는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고 자신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들이 반역하였음에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식을 품어 양육하는 어머니 모습에 일치한다. 이 외에도 상당한 구절들이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 모습에서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인간을 돌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이라는 성서 표현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모든 관계가 상호 돌봄에 근거하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돌봄’에 있고 세상을 유지하는 힘은 ‘돌봄의 관계’ 형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속성- 양육과 돌봄,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상징, 행위로부터 돌봄의 형태를 찾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이 자궁의 기능과 같은 ‘돌봄, 양육’임을 밝혀 낸 것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를 은퇴한 필리스 트리블의 업적에 의한 것이고, 돌봄의 행위가 표출되는 동기가 고난의 상황에 대한 정의의 분출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은 한국의 김이곤이다. 트리블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이야기에서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밝혀내는 순간에 ‘그 여자의 라하뫼(rachamim)’이 불붙는 것 같아졌다고 한다. 히브리어 라하뫼는 ‘연민’, ‘자비’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는 복수형이고 그 단수형 ‘레헬’이라는 단어는 ‘자궁’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궁이라는 여성의 신체 기관이 복수가 되면서 추상명사 라하뫼 곧 ‘연민’이 되어 정신적인 의미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리블은 자궁은 통제,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양육하고 돌보는 곳이라고 하면서 이 라하뫼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에게도 있어 사랑과 고통에 대한 감성을 일으킴을 또한 밝히고 있다.

김이곤 교수(1989)는 출애굽기 3장의 연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파라오의 학정으로 고난을 당하며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라하뫼가 떨어져 히브리 민족을 구

원하고자 결단하였다는 의미를 밝혀내었다. 하나님의 연민의 진통, 연민의 열정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스라엘 해방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 야훼 하나님의 열망은 고난 받는 자에 대한 긍휼(연민)을 가리킨다. 그는 연민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이라고 한다. 즉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의 열정으로 드러나는 연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 속성 자체가 ‘돌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는 명제를 증명해 주는 기독교 신관의 특수성을 보여 준다. 그 위에 그 돌봄-사랑이 ‘정의’에 기반하여 표출된다는 것도 특별하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다.

4) 예수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핵심을 답할 때 예수님의 ‘네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성서 이야기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 이타주의적 실천 봉사의 근거를 제시하여 이웃 돌봄의 기본 가치가 되었다. 고통당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행동 곧 예수의 교훈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길이 된다고도 믿었다.

엄영관 교수(2014)는 그리스도 교회는 특히 계급타파의 정신으로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한 간호나 돌봄을 중요시했고 그것이 이타주의에 기초한 실천으로 드러나는 기본 가치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모델은 돌봄이 단순히 일시적, 반사적인 동정적 돌봄이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 더이상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살피 주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본다. 사마리아 사람이 끝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피 준 것처럼 말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돌봄의 실천적 차원을 제시하는 성서의 실제적인 돌봄의 제시라고 하겠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 곧 돌봄의 주체가 당시 유대사회에서 멸시받고 배척당하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돌보는 자가 사회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사회의 중심에서 배제된 영역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공동체적 의식’, ‘돌봄의 인간성’을 가져 ‘돌봄의 사회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현 사회의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돌보는 자와 정책을 만드는 자 간의 갈등,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

3. 돌봄윤리에 대한 신학적 응답

필자는 여성의 경험으로 표현되는 관계적 자아, 구체적, 다원적, 활동적인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서적, 신학적 개념이 무엇일 까를 고민한 후 ‘연민, 살림, 지혜’라는 세 가지 개념이 돌봄 윤리를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성서적, 신학적 언어라고 생각했다.

1) 연민은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속성이 연민이라는 근거 위에 설정됐다.

이 연민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인간의 존재 양태라고 본다. 연민은 대상을 향한 감정이며 특히 그 대상이 고통에 있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솟구치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연민은 관계적 자아를 말한다. 그리고 연민과 여성의 자궁관계는 생명 일체적이고 유기체적 관계의 인간 존재를 보여 준다. 아이가 비록 자

신의 몸에서 분리된 상태일지라도 자궁의 라하뫼는 아이와 일체로 묶여 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소유나 통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연민의 이런 생명일체적 관계는 단순히 생물학적 관계에서 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연민은 약한 것을 향하여 움직이고 그 약한 것에 감정이입적 자기 동일화를 가지고 타자의 고통, 기쁨,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여 일체가 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이 노역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돌봄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연민은 해방의 힘으로 나아간다. 사회적 불의를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살림과 지혜는 성서의 여인들의 이야기에 근거하였다.

여인들의 지혜에 나타난 생명 살림과 돌봄이 가장 두드러지게 이야기된 성서 본문은 출애굽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에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 이야기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히브리 남자 아이를 낳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비천한 신분의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고 보살폈다. 산파들은 왕 앞에 불러 갔을 때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당도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출애굽기 1:19)라고 지혜를 써서 대답하였고 왕은 산파들을 더이상 추궁하지 못하여 결국 산파들이 왕을 이긴 승리의 이야기다. 여인들의 지혜에는 가부장적 전통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의 원리들, 곧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보살핌의 사회화’와 ‘사회적 보살핌’을 이룰 수 있는 방식의 원리들이 들어있다고 하겠다.

살림은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의 개념이고 생명을 있게 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모든 형태의 삶이 포함되는 존재론적 개념이

다. 여성들의 생명 활동은 양육과 재생산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자기희생적 삶이라 하겠다. 여성들의 이런 생명활동은 구체적이고 창조적 힘을 나타낸다. 죽었던 것을 새롭게, 죽어가는 것을 새롭게 살려 내는 행위는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이다. 여인들의 삶의 방식은 아마도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Primo Levi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나오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내일 곧 죽음의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전날 밤 모두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법을 찾아 삶과 작별했다. 기도를 하는 사람, 취하는 사람, 잔인한 마지막 욕정에 취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여행 중 먹을 음식을 밤을 새워 정성스레 준비했고 아이들을 씻기고 짐을 꾸렸다.”

곧 생명과 생존을 위한 무한정의 돌봄과 보살핌, 그것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이 살아온 방식인데,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서조차도 그 현실에 꿰뚫어 직면하면서 보이지 않는 다음의 생존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의 삶의 방식이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참 사람, 사람다운 사람에게 주신 영원한 영혼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사는 모습이였다.

살림은 또한 노동성을 가진다. 그냥 살려지는 것이 있겠는가? 살림의 본질과 원리는 돌봄이다. 양육의 행위는 모든 생명의 필요에 응하는 사랑이다. 육체적 물리적 차원에서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노동 형태를 가지는 일이다. 살림의 노동성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모든 위기적 상황에도 생기며, 가사노동, 질병과 장애 등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다. 노동이 일방적인 희생과 연약함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하지만 노동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결국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도로테 쉐레Dorothee Soelle는 ‘하나님도 노동하는 자’로 표상하며 노동의 소외로 인한 죄성을 창세기에 말하고 있

다. 노동은 나의 생존과 타인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살림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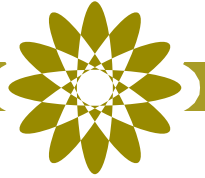
3) 지혜는 생활 속의 관계성, 생활 속의 정의다.

지혜는 산파의 이야기에서 확실한 근거를 보인다. 지혜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진리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경험에서 얻는 것이다. 주어진 규범과 원칙에 의해서 진리나 정의를 규정짓는 일반적 법질서와 달리, 개개인의 상황과 맥락에서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이 지혜의 특징이다. 생활 속의 관계성, 생활 속의 정의를 말한다. 지혜는 원칙의 사회 제도나 공정성의 문제를 개인의 개별적 요구와 통합적으로 이루어 나간다. 합리성과 법칙에 의한 정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특수 상황과 맥락에서 정의를 찾아나가는 생활 속의 정의이다. 히브리 산파의 지혜는 왕의 법질서와 대결한다. 왕은 합법적 질서와 폭력으로, 산파는 생활 속의 지혜로 대결한다. 그들은 출산된 아기를 부모나 친척이 눈으로 확인 한 후에는 산파라 할지라도 비밀리에 살해할 수 없다는 일반적 관습의 지혜로 왕권에 도전한 것이다.

지혜는 대체로 민중의 언어이고 힘없는 자의 언어이다. 민담 속에 나오는 수많은 지혜의 이야기들이 이를 대변해 준다. 지혜는 약한 자의 보호의 힘인 동시에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힘의 언어이다. 지혜는 생활 속에서 돌봄의 힘으로 작용한다.

4. 나오면서

돈과 권력의 횡포 그리고 위법적 환경이 결과론적으로 인간성 왜



돌봄의 별에서 온 그대, 여성?!

정신희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과정

1. 두 가지 돌봄 이야기

퀴즈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사는 알콜 중독 아버지가 있다. 평소엔 온순한 편이지만 술만 먹으면 자기 아들을 무자비하게 때린다. 처음에는 울면서 맞기만 하던 아이가 점점 난폭해지더니 급기야 동네 아이들을 때리고 학교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하는 비행 청소년이 되어간다. 이 아이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정답은 한 살 때 헤어진 엄마.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아버지보다 부재하는 어머니는, 부재 그 자체가 아이 잘못에 대한 귀책사유가 된다. 반대로 집 나간 아버지의 경우 그 자식은 ‘호로자식’이라고 욕을 먹을지언정 부재하는 아버지가 비난의 대

상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혼자 아이 키우느라 부양과 돌봄의 이중의 노동에 시달리는 엄마의 ‘부실한 돌봄’이 문제가 된다. 여성에게 ‘돌봄’은 시지프스의 바위¹처럼 무한 수행을 반복해도 책임 완수가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다.

어쩌다가 이런 년센스에 가까운 생각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을까.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고 돌볼 수 있는 능력도 타고났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여성이 아버지나 남편, 남자친구보다 천성적으로 아이를 더 잘 돌보고, 요리도 더 잘하는 게 확실한가? 출산 첫 날, 태변을 본 아기의 기저귀를 갈지 못해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애 엄마가 치워야지, 누구더러 치워달라는 거냐”고 무안을 당했던 필자로서는 도무지 수긍하기 어려운 말이다. 결국 눈물을 삼키며, “아가기가 다칠까봐 그렇지”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왜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아기 기저귀 가는 법도 배우지 못했나’, ‘학교에서는 부상당한 군인을 위해 삼각봉대 매는 법은 그렇게 많이 가르쳐놓고 기저귀 가는 건 왜 안 가르쳐줬나’ 원망하면서 무지한 엄마 때문에 혹시 아기가 기저귀 갈다가 치명상을 입는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공포에 떨며 눈물의 첫 기저귀를 갈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선천적으로든 경험을 통해서든 여성이 아이를 잘 돌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능력은 노동시장에서는 불필요한, 혹은 덜 필요한 능력인가? 그래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번번히 좌절되거나 제한되거나 저임금노동자로 수용되는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물음들은 여성=돌보는 자, 남성=돈 버는 자라는 통념 앞에서 번번이 침묵이 강요된다. 성별분업은 과연 ‘자연의 섭리’일까? 일단 그림 한편을 감상하면서 머리를 식혀 보자.

1. 제우스의 비행을 일러바친 대가로 지옥의 신 하데스로부터 가혹한 형벌, 곧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리는 바위를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는다. 시지프스는 ‘하늘이 없는 공간, 측량할 길 없는 시간’과 싸우면서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다.



<시몬과 페로>, 페테르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 출처: doopedia.co.kr

씩 유쾌하지 않은, 아니 사실 머리를 더 뜨겁게 만드는 이 삼류 춘화와도 같은 <시몬과 페로> 그림의 저자는 무명의 거리의 화가가 아니라 서양 미술사의 거장 페테르 루벤스 Peter Rubens (1577~1640)다. 루벤스는 고대 로마의 역사가 발레리우스 막시무스 Valerius Maximus가 서기 30년 경 펴낸 『로마의 기념할만한 업적과 기록들 Facta et Dicta Memorabilia』 제 4권 5장의 로마 설화를 바탕으로 그렸다고 한다. 설화의 내용은 그림의 시각적 느낌과 달리 ‘숭고하기까지’ 하다. 감옥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면회 온 딸이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아기를 돌보듯 젖을 물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도관들이 감동하여 노인을 석방하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한다.² <시몬과 페로 Cimon and Pero>라는 이 그림의 또 다른 제목은 <로마인의 사랑 Caritas Romana>. 즉 로마인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돌봄’의 원형을 그림으로 표현한 셈이다.

2. 이 그림과 이야기는 한동안 인터넷에 회자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외설이지만 사실상 인간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보이는 것만 보고 선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등의 교훈을 네티즌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숨겨진 이야기가 어떠한 여전히 시각적 불편함이 남는다. 무엇보다 가장 받아들이기 불편한 것은 이러한 남녀관계가 ‘돌봄의 원형’이라는 듯한 그림의 ‘교훈’이다.³ 그림 속에서 여성은 어떤 불쾌감도 감내하는 ‘돌보는 자’로 신비화되어 있고 남성은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갖난아기처럼 일방적으로 ‘섭취하는 자’이다. 또한 이들의 관계는 남녀관계이자 동시에 가족관계이다. 서구의 수많은 남성 화가들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제목의 유사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⁴ ‘돌봄’의 책임을 ‘여성’과 ‘가족’에게 할당하고자 하는 무의식 혹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심증은 ‘돌봄’에 대한 다른 남성 화가들의 그림들을 비교해 보면 좀 더 명백해진다.⁵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바탕으로 그린 아래 렘브란트



<선한 사마리아인>, 렘브란트(Harmensz van Rijn Rembrandt, 1606-1669)

3. 이 이야기는 원래 모녀간의 이야기가 중심이었고 부녀이야기는 한 줄에 불과했는데 보카치오(16세기) 시대에 이르러 이야기가 부녀관계로 각색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훈’은 원 작자인 막시무스가 아닌 보카치오 이후 남성 화가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4. 아미코 아스페르티니(1474-1552), 장 구종(1510-1567), 사를 멜랭(1600년 경-1649), 장 밥티스트 그뢰즈(1725-1805)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서양 남성 화가들이 최근까지도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었다.

5.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들로는, 렘브란트(Harmensz van Rijn Rembrandt, 1606-1669), 콘스탄틴 다니엘 반 레네스(1626-1680), 장 자크 에네(1829-1905), 들라크루아, 고흐 등이 있다.

(1606~1669)의 그림은,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와 달리 남녀관계와 가족에 주목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핵심 사상이 ‘돌봄’이며 돌봄의 주체와 대상과 장소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님을 그림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물과 공기처럼 사회에 편재하여 모든 사람의 평상심 안에 일상적으로 깃든 돌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이쯤 될 것이다.

율법학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

율법학자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학자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피하고 사마리아인은 돌보아 주었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분명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가족 내부에서 사적으로 행하라는 것도 아닐 것이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돌보는 자와 돌봄 받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 (그림에서 보듯, 아낙이 물을 길고, 개가 똥을 누는 일상 중에도)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서로 돌볼 것을 예수는 명령하고 있다. 만약 율법학자가 또 다시 예수를 시험하면서 “그래도 내 이웃에서 여자는 빼야겠지요?”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 “무슨 수작이냐”며 성전 앞 장사치들의 상을 엮으셨던 채찍을 다시 한 번 휘두르시지 않으셨을까? 분명 예수님도 ‘여성=돌보는 자’의 통념 앞에서 대노하셨으리라.

그런데 여전히 남는 이 찻점함은 무엇일까. 내가 내 아이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노동시장에 집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는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직장으로 향하게 될 때 또는 우는 아이가 눈에 밝혀 아직 상사가 퇴근하지 않은 밤 9시 먼저 퇴근해야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여성들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엄마이기보다 직장인으로 자신의 ‘육구’를 앞세운 죄, 직장인이기보다 엄마로 업무를 ‘태만하게’ 한 죄.

그런데 가만히 따져 보자. 남편의 부족한 ‘가족부양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부양’과 ‘가족돌봄’의 이중노동에 시달리는 아내의 직장생활이 여성의 ‘육구 충족’ 혹은 ‘자아실현’을 위한 것인가? 유치원 원감 승진을 1년 남겨두고 밤 10시까지 일해야 하는 유치원교사를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영어 유치원 강사가 되기 위해 테솔(TESOL)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이것도 개인적인 ‘육구’ 때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돌봄의 현장으로부터 잠시라도 부재하게 될 경우 그 원인이 마치 여성의 ‘육구’ 때문인 것처럼 비난받는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갔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12시간 일하느라 집을 비우든, 여성의 돌봄 부재는 여성의 ‘육구’ 때문인 것처럼 재현된다. 저출산의 원인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육구’ 때문인 것처럼 맥락화된다. 진실로, 진실로 ‘돌봄’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여성의 이기심일까?

2. 엄마라서 미안해

영화 <마더>⁶의 상상력을 빌어보자.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해 바보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늘 시달리던 엄마가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위해 아들의 친구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 친구를 면회하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또 다른 죄책감에 시달리며 오열한다. 그리고 원망스럽게 외친다. “너는 엄마 없니?”

엄마가 아니면 아무도 아이를 돌봐주지 않는 사회에서 한 아이의 생존과 건강과 교육과 미래의 모든 것을 돌봐야 하는 엄마가 된다는 건 때로 다른 아이에게 악마가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고도경쟁의 시장사회에서 엄마에게 떠맡겨진 강박적인 ‘돌봄’의 책임은 때로 한 사회를 위협할 만큼 파괴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이 영화는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 있다.

다소 극단적인 상상력이긴 하지만 영화 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여성의 ‘개인적 욕구’와 ‘돌봄의 책임’인가? 영화는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가족을 완벽하게 ‘돌볼수록’ 나쁜 엄마라는 죄의식에서 벗어날지언정 사회적으로는 더 나쁜 시민이 될



영화 <마더(Mother)>의 포스터

6. 봉준호(2009), 영화 <마더(Mother)>.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여성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초래된 것도 아니고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의 규범을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인 만큼 ‘여성 문제’⁷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돌봄으로부터 ‘여성적인 것’, ‘사적인 것’을 구별하여 그것이 ‘진정한’, ‘자연스러운’, ‘본질적인’ 돌봄인 것처럼 규정⁸한 데 따른 사회 전반의 돌봄 시스템의 와해의 문제, 즉 전체 사회 문제이다. 한 사회가 돌봄 책임과 가치를 누구에게, 어디에, 어떻게 할당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돌봄은 여성 문제인 것처럼, 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맥락화될 수 있었을까? 돌봄이 성별화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돌봄이 성별화되었다는 것은 돌봄이 단지 생물학적 여성들에게 책임 지워진 사태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별화 과정의 이면에 작동하는 위계적 이분법은 여성을 남성으로 표상되는 중심 권력과의 관계를 통해 규정하고 배제하며 의존하고 부정한다. 돌봄이 성별화되었다는 것은 돌봄 역시 위계적 이분법의 우향에 위치한 여성의 자리에서 남성으로 표상되는 ‘무엇’(이후 편의상 Y로 지칭하겠다)과의 관계를 통해 타자화됨을 뜻한다.

‘남성’, ‘공적영역’, ‘백인’, ‘서양’ 등 이분법의 좌향에 위치한 중심 권력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여성’, ‘사적영역’, ‘흑인’, ‘동양’ 등을 재규정하고 도구화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해소해왔듯, ‘돌봄’ 역시 좌향의 ‘Y’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재규정되고 도구화된 역사를 가진다.

따라서 여성이 돌봄에 관련한 고민들을 단지 ‘개인적 욕구 vs 돌봄의 책임’의 충돌의 문제로만 읽어 낸다면 이미 성별화된 돌봄의 패러다임이 여성적인 것으로 축소된 사적 돌봄의 패러다임의 정의롭지 못한 전제들을 여성들 스스로 인정하

7. 여기서는 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라는 의미로 사용함.
8. 돌봄은 한 사람이 이성적 사고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대상이 필요에 반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목표와 방법을 수정하는 과정인 만큼 ‘진정한’ 돌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돌봄의 가치를 쉽게명처럼 보편적 원칙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는 것이 된다.

루벤스의 그림 속 페로의 고민은 시몬을 밀쳐 내고 이타심 대신 이기심을 선택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굶어 죽어가는 시몬에게 꼭 필요했던 방식으로 페로가 보살폈던 방식이 ‘돌봄의 원형’인 것처럼 전유되고 유포되고 맥락화되어 다시 페로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경로 어딘가에 페로의 고민이 위치해야 할 것이다.

시몬과 페로의 그림 속 돌봄은 명백히 현실의 사적 돌봄이 실천되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포착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다 넓은 사회적 돌봄의 스펙트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 윤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된다.

‘돌봄’을 둘러싼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의 좌향 ‘Y’를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대개 ‘Y’의 위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국가, 가족, 시장 등이다. ‘돌봄’은 대개 이들과의 역사적 관계에 따라 재구성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전쟁 후 복구 행정기의 경우 사람들 간의 신뢰 회복을 통해 ‘사회’를 다시 일으켜야 했기 때문에 국가와의 관계에서 돌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 자원으로 재구성되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재구성된 가운데 국가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던 ‘압축적 경제 성장기’의 경우, 국가는 돌봄을 가족결속력과 가족 단위 자립의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이때의 여성의 돌봄은 국가의 요청대로 가족의 필요에 부응하면서 가족구성원들의 시장에서의 성취를 지원하기 위해 도구화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즉 사회적 돌봄 전반이 파괴되었던 전후에 국가는 전체 사회의 돌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돌봄에 의존하고 이를 ‘복지자원’으로 규정했다면, 이미 전체 사회 돌봄 수준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는 ‘경제성장기’에 국가는 여성의 돌봄을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재구성한다. 가족주의와 연동시켜 규범화함으로써 발전에 도구화할 수 있는 ‘사적인 것’으로 축소하여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전반적인 돌봄의 스펙트럼을 비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3.

사적 돌봄을 넘어 사회적 돌봄으로

그렇다면 최근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어떤가? ‘돌봄’은 어떤 성격의 ‘Y’와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 최근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은 ‘전후 복구 행정기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 자살률,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해마다 갱신되고 특히 아동, 청소년 사고사 비율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주요 국가에 견주어도 매우 높다.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한 국가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 사고사 비율은 총기사고가 빈번한 러시아보다 높고, 인구 경제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과 비교해도 갑절 차이이며, 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가 우리보다 3천만 명이나 더 많은 독일을 앞선다.⁹

‘다문화공존사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¹⁰’이라는 국가의 구호가 무색할 만큼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 폭력과 사건, 사고, 재난, 참사로 얼룩지고 있다. ‘국민행복’은커녕 ‘국민실존’이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는 ‘타인과의 공존’보다 각자 이익을 취하고 각자 책임지는 ‘각자생존’이 장려되는 사회, 단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¹¹’로 축소되고 있는 듯하다. GNP가 가리키는 경제적 조건은 ‘발전’하고 있는데 왜 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의 실존적 조건은 후퇴하고 있는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은 더 이상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수

9. 한겨레(2014. 5. 1), “해마다 ‘세월호’ 4배의 아이들이 희생된다” 인민택 기자
10. 이명박 정부 초기 2009년 6월 9일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정치, 경제, 종교, 시민사회계가 함께 참여하여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전국에 출범시키고 지역의 여성단체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출산장려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11.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전 세계 120여 개국을 대상으로 물가, 실업률, 조세, 기업인 우대정책 등 국가별 기업경영 환경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순위. 2006년에는 ‘자본친화지수’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나 2008년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경되어 발표. (한경경제용어사전)

사로 미화될 수 없는 심각한 ‘인간실존의 위기 상황’임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취볼 때 최근 우리 사회의 ‘돌봄’을 규정하는 중심 권력 ‘Y’의 성격은 사실상 ‘시장’에 가까워진 듯하다. 그런데 시장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국가는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심드렁한 것 같다. 전후 복구 행정기의 국가가 여성 돌봄을 공공영역을 활성화하고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면 21세기 글로벌경쟁시대 국가는 여성 돌봄을 사회 대신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보육정책으로 축소된 국가의 여성정책은 오로지 여성의 재생산성에 집중되어 있다. 시장이 도구화할 수 있는 형태로 돌봄을 축소하다 보니 <시몬과 페로> 방식의 돌봄, 즉 ‘사적인 것’으로서의 돌봄만이 ‘돌봄’이 되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돌봄은 점차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돌보는 개인’이 되어갔고, 이들의 이름은 생존자 명단보다 희생자 명단을 통해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국가에 의해서 ‘위기’로 인식되지 않는다. 시장이 중심이 된 시장/돌봄의 이분법 사회에서 ‘위기’라는 단어의 올바른 용례는 ‘시장의 위기’이지 ‘돌봄의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돌봄의 관계에서 돌봄은 시장에 의해 도구화될 수 있으며 시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돌봄은 돌봄이 아니다. 따라서 가사, 보육, 노인돌봄 등 사적 돌봄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가더라도 시장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빈곤, 재난, 안전문제, 인간관계, 자연과 공동체의 파괴, 실업률, 자살률, 사고사율, 출산율 등의 단어를 ‘돌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용례에서 벗어난다. 감히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돌봄이 배제된 채 시장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 여성은 돌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전후 복구 행정기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12.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에서도 ‘국민’의 생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조에 나섰던 건 ‘국가’가 아니라 ‘세월호의 영웅들’로 명명되었던 ‘보살피는 개인들’이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돌봄 에너지와 책임감을 사회의 ‘위기’의 순간에 공적인 것으로 바꿔 내는 실천을 늘 해왔다. 그러나 돌보는 자가 점차 멸종될 위기에 놓인 시장 사회에서 여성이 돌봄의 맛을 아는 몇 안 되는 인류로 남게 될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은 간단치가 않다. 단지 맡겨진 책임감에만 반응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페로의 가슴에 매달려 한 없이 일방적으로 ‘섭취하던’ 시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더이상 절체절명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만족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자본이 되었다. 따라서 시몬은 감옥에 격리된 페로 혼자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수많은 다른 페로들에게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다른 페로들은 반드시 여성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장애인, 노인, 이주민, 빈민, 환자, 아동청소년, 타종교인, 타인종인 등의 모습일 수 있다. 이것이 같은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타자들과 손을 잡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할 이유다. 시장이 사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시장은 사회 안에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최진(2004). “시민권론을 통해 본 보살핌노동지원체계 성격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칼 폴라니, 홍기빈 역(2009).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글을 쓴 정신희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돌봄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살던 지역에서 공동육아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돌봄과 여성의 문제에 긴 시간 천착하게 되었다. “보살핌 공간의 사회적 확장에 관한 연구: 어린이도서관 여성활동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을 썼다.



성별화된 돌봄노동의 주변화와 평가절하

박홍주 / 서강대학교 여성학 강사

최근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워킹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드라마 <미생>은 선차장의 하루 일과를 통해 '워킹맘은 어디서나 죄인이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워킹맘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맡기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하는 많은 워킹맘들이 스스로를 '나쁜 엄마'라 말하며 돌봄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현실은 더이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돌봄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 위협이며 복지국가 체계 내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장지연, 2011).

현대 사회의 가족 1인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그리고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의 변화로 인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과거와 달리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가족형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대부분의 돌봄을 제공해왔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이 생계부양자 역할에 진입한 만큼 남성의 돌봄 역할 진입은 이루어지고



<그림1> 워킹맘의 현실(출처: tvN 금토드라마 '미생' 방송캡처)

있지 않아 '정상' 가족내 돌봄의 분담과 공유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않는 '돌봄의 공백(care deficit)'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사회 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하면서 사회서비스 확대와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증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여성들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돌봄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돌봄노동의 특징과 돌봄노동자의 사회적 위치를 짚어보고자 한다. 돌봄사회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사회의 돌봄노동의 평가 및 노동현실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1. 돌봄노동, 여성에게 남은 일자리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특히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적합' 직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가 바로 사회서비스 부문의 돌봄 관련 일자

리이다. 특히 이전 여성과 가족이 담당하고 있었던 돌봄 노동이 사회 서비스화되면서 돌봄 서비스 노동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여성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

‘돌봄^{care}’은 좁게는 ‘가정에서 무급으로 수행하는 어린이나 노인에 대한 보살핌의 행위’로 이해되지만 광의로는 ‘어린이나 성인(장애/비장애)의 일상 활동을 돕는 가정·사회에서의 무/유급의 활동 및 체계’를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돌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광의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돌봄을 ‘삶을 살아가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Fisher and Tronto, 1990)이라 주장하며 다른 학자들도 돌봄을 ‘사회재생산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활동’(Kittay, 2002)이라 정의한다. 그러나 돌봄이 아무리 사회적 유용성과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가족 내에서 여성이 무보수로 수행하던 돌봄이 공적이 영역에서 유급 돌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숙련의 저임금 일자리로 만들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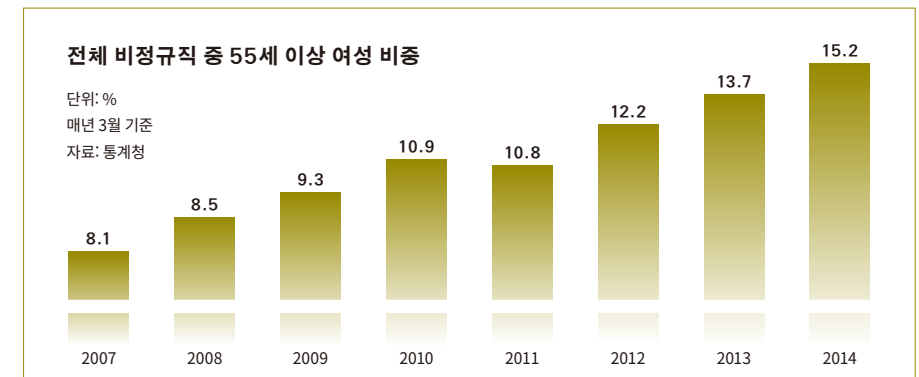
돌봄 서비스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서비스, 아픈 환자나 노인을 돌보는 간병, 요양 서비스, 장애인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 보조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이 중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영역은 제도화되어 있고, 간병인 영역은 현재 공식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여성인 돌봄 서비스 근로자들은 특히 간병인을 비롯한 의료 복지 서비스직과 보육교사의 경우 보건의료전문직과 초등학교 교사 이상의 교육관련 전문직을 제외하면 하위 돌봄 서비스직에 해당하고 이들은 임금과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처해져 있다(황덕순, 2013).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취업취약계층, 빈곤노동계층,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 중심이며, 사회서비스 부문 또는 민간 비공식 부문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독거노인 재가 가정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성격이 또 저하구 맞는 거예요. 할머니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섬기구, 말뭉 해 드리구, 하는 게 저 하구 좀 맞드라구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어르신들 케어 하다보면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음~ 우리 인생도 이렇

게 늙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때면,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전에 가사 간병 일을 하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일정한 소득도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소득 이게 다른 급여 하구는 수준이 조금 좀 괜찮다 싶어 가지구 이쪽으로 돌아 왔어요. 현재 직업에 있어서 만족도 하고 있고....”(정진주, 2012. pp. 142~143에서 재인용)

위 사례는 직업이 간병일을 하던 여성인 경우 자격증을 획득하여 요양보호사가 된 경우이다. 이는 간병이라는 일의 연장선에서 자격증과 함께 ‘전문직종’을 가져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진주, 2012). 그러나 대다수 돌봄노동자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도 여자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시작하게 된 경우이다. 실제 중·고령층 여성 비정규직은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들은 주로 청소·용역 등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단순 노무직과 청소, 간병, 요양 등 중·고령층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보건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고 있다.

2014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5명 중 3명은 55세 이상의 중·고령층 여성이었다. 무엇보다도 남성의 은퇴 생계난 및 고령화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노후생활 자금이 필요한데



<그림2> 전체 비정규직 중 55세 이상 여성비중

다, 청년 실업 문제로 자녀들의 독립이 늦어져 일하는 중 고령층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 2014). 그렇다면 중·고령층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노동의 현실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2. ‘불안정’한 ‘저임금’의 돌봄노동

2006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돌봄 영역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고용의 질은 담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송이, 2012). 특히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의 질 낮은 여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 서비스로 제도화된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과 정서 지원, 그리고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이다(노인복지법 개정안 제39조의2항).¹

“이 요양일 하시는 분들의 보수를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대가가 조금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에. 왜냐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이 뭐

1. 요양보호사들의 주된 일은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활동지원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가지 이상의 지원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로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일상생활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서비스 등으로,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취사, 청소, 세탁 등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 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주고, 돌봄대상자의 외출시 동행지원과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돌봄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그리고 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의 정서지원서비스 등도 일상생활 활동지원에 포함된다(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홈페이지).

좋고 이렇다 그랬는데 사실 힘들어요. 힘들기는. 그 정말 사람마다 체격이 크고 작고 한사람이 있잖아요. 체격 크신 분들은 두 사람이서 해도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서 우리 선생님들이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어깨 아프고 손목 아프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박순주, 2014, p.56에서 재인용)

대략 29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시급 5,500원(2014년 기준)을 받는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이다(정진주, 2012; 박순주, 2014). 돌봄대상자에 대한 신체적 지원서비스의 경우 특히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장시간 일하면서 몸이 힘든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더욱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없거나 근무형태가 돌봄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화되기 근무형태이므로, 국가와 연계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용도, 수입도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주세요. 병원 가는 시간만 필요해서 한 번만 와 주세요.’ 그러면 한 번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9시부터 뭐 8시 반부터 12시반 까지 이렇게 4시간, 뭐 1시 반부터 5시 반 까지 이렇게 4시간 이렇게 되면 되는데. 어떤 분은 뭐 4시간 받길 원하시고, 어떤 분은 3시간 받길 원하시고 이러다 보니 이게 딱 그 때 맞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이 한 일주일정도 입원해 계시면 그 달의 수입은 없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지. 서비스를 못하니까.”
(박순주, 2014, p.67에서 재인용)

위 사례에서 말한 것처럼 요양보호사가 센터장 또는 돌봄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정되는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어, 12시간 노동과 4시간의 식사 및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이는 요양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가사관리사와 입주도우미의 경우 국가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소개받는 요양보호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돌봄노동을 하고 있다. 가사관리사의 경

우 하루에 2개소에서 일하는 경우, 오전 근무, 오후 근무, 종일 근무에 따른 차이 없이 29종 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반나절 근무시 노동강도는 종일 근무에 비해 거의 2배까지 높을 정도로 '시간'의 압박을 받는 강도 높은 육체노동으로, 대다수 가사관리사들은 어깨, 손, 무릎 등 근골격근계 질환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3. 돌봄노동자의 감정적 소진과 감정노동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중노동'으로 표현되는 목욕 등의 일과 일상적인 가사지원이 포함되지만 고객이 환자이고 환자의 보호자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업무의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된다. 특히 고객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고 돌봄이 필요한 환자이므로 특히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어려운 거는 할머니들이 인지가 안 되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 같은 것도 그렇고, 오늘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툭툭 쓸 때도, 말 자체를 탁탁 이렇게 맘에 안 들어서가 아니구, 자기네들 기분에 따라서 하거든 할머니들이. 그러다가 어머 그러면 가기 싫을 때 있어. 그런 날 또 있어. 그래갖고 그 이틀 날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가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니까는 할머니들 얘기같이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 하고 생각하면 안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화 두 낼 수가 없구, 그 뒷날 분명히 가면은, 가기가 싫은 건데 할머니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분은 좀 나쁘지만.”(정진주, p.163)

요양보호사의 일이 환자의 상태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므로, 환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나빠지는 것'에 스스로 대응해야 하고, 환자의 상태에 잘 맞추어야 한다. 이처럼 돌봄노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돌봄대상자와의 폭력, 감정적 소진, 성

희롱 등의 성적 경험 등의 노동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돌봄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감정노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호셴드(Hoschschild, 1983)는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행위를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 정의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친밀함과 배려심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노동을 수행하는데, 한국의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집안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쓰는 세심함으로 집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아이와 노인, 그리고 환자에게 따듯함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직업 불안정성, 낮은 직무 재량권, 관계갈등, 감정적인 노력, 감정부조화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남윤인순 외, 2013).

4. 성별화된 돌봄노동과 여성들간의 차이

'성별화된(gendered) 돌봄노동'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돌봄 관련한 남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 계층, 그리고 구조를 의미한다(Lorber, 2005; 박홍주, 2009). 더이상 감정노동과 돌봄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한 자연스러운 '일'이나 '여성다움'이 아니라 지역, 성, 계급, 인종, 국적 등 기존의 사회적 경계들과의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일자리로서 공적영역으로 이동한 돌봄은 비록 임금교환이 이루어지는 노동으로 제도화되었지만, 지금까지 여성이 '당연히 해야 할 일',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의 노동으로 간주되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는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간병, 정서지원, 가사도움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돌봄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파출부처럼 생각하고 쓰던 파출부까지 해고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사지원을 요구하는 돌봄대상자들의 행동에서 엿볼 수 있다.

“그냥 저기 파출부 식으로 밥이나 해 주고 밥 떨어지면, 그리고 뭐 우리 환자님들, 기저귀 만약에 하고 계시면, 기저귀나 갈아 주고, 목욕 할 때 되면 목욕이나 시켜 주고 뭐 이런 차원 밖에 생각은 안하시고, 요양 보호사라는 게 진짜 관리를 해 주는구나. 관리하고 일을 해 주는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정진주, 2012)

“그런(국가가 고용한 파출) 인식 때문에 가서 차 마실 시간도 없이 계속 일만 하다 오는 거야. 4시간 동안 일하다 땀하고 나오는 거야. 야, 이걸 뭐 파출부도 이리진 않겠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지키고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절 때 되면 만두 빚어라 뭐 해라.”
(박순주, 2014)

위 사례에서 보듯, 여성들은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전문적인 돌봄 일자리에조차 ‘그냥 파출부’, ‘가사도우미’처럼 대우받는다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돌봄노동을 ‘더럽고 힘든 일’, ‘과중한 육체노동을 나쁜 노동조건’의 일로만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들에게 돌봄은 힘든 일이지만, ‘돈만 생각해서는 하기 힘든 봉사’,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 일’,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기도 하다.

“거의 다 이게 희생정신 봉사 정신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거가 힘들어요. 이해 타산적으로는 힘든 직업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때로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되더라구... 이게 하다 보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잖아 그런 분들은 집에 당장 모가 없어요. 생활 필수품이. 근데 우리 집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럼 들구 가요 가끔 맨날. 싸 갖구 가는 거야... 그 행복해 하는 마음이 우리들은 보기 좋잖아요, 환자들이.”(정진주, 2012)

이처럼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돌봄노동자가 자부심을 갖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연 돌봄이 여성에게만 적합한 일인가를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여성요양보호사가 업무수행에 있어 환자를 들어야 하

는 경우 등 무거운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는 일이나 남자 환자로부터 성희롱 등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남성이 이 분야에 적합할 수도 있다. 가사노동과 정서적 지원 등 돌봄노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을 남성이 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자라면 누구나 쉽게 돌봄노동과 감정노동을 잘할 수 있다고, 오히려 여성이 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 돌봄의 성별화된 차별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 여성이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남성뿐 아니라 여성조차도 여성에게 돌봄을 전가하여 남성과의 돌봄노동 공유 및 돌봄의 사회화를 진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주인여자는 도덕도 없고 싸가지도 없어. 서로 맞추면 뭘텐데 그걸 못해. 그러니 8명이 나가지. 주인여자가 나쁘지, 아저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나한테 너무 잘해요. 말이라도 너무 고맙다고 하고, 몇 만원이라도 줘어 주면서 만난 거 사드시라고 하고. 그런데 어째 그런 여자랑 결혼했는지.”
(박홍주, 2009. p.200에서 재인용)

돌봄노동자 중 다수는 돌봄노동의 책임을 지지 않는 남성 가족구성원을 ‘좋은 사람’으로 말하나, 직접적인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여성을 돌봄을 ‘나쁜 주인여자’로, 모성 또는 효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나쁜’ 여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는 여성의 학력, 계층, 인종, 국가 등에 따라 돌봄에 관한 여성들 내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만 살펴보더라도 돌봄노동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도 있고, 돌봄노동을 하기 위해 자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이주여성들도 존재한다. 이는 중산층 가족이 돌봄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 남성과의 양성평등한 돌봄노동 책임을 분담하기는 것이 힘들어, 여성들 사이의 ‘불안정한’ 돌봄노동 분업이라는 대안을 선택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적 영역의 상품화된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기존의 노동법 제도의 한계로 인해 대다수 돌봄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과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돌봄노동의 분

답을 제도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돌봄노동의 재평가를 위한 고민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는 여성으로,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안정성, 낮은 임금, 불규칙한 장시간의 대기노동, 돌봄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감정적 소진, 성희롱 등의 성적 경험 등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돌봄노동자는 잦은 직업이동과 높은 이직률,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및 감정적 소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건강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돌봄 관련 일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 주된 원인은 중고령층 여성들이 취업하기 쉬운 직종이 주로 돌봄 관련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봄사회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적절하게 제공하면서, 이와 동시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여 돌봄노동을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돌봄노동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돌봄노동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위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확충을 노동 관련 문제 해결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해야 한다. 실제 오늘날 돌봄노동의 주변화와 평가절하가 심화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사회서비스의 노동시장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양적인 고용창출 성과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고용안정과 임금 상승, 돌봄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의 적용 및 공공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

히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민간부분의 비공식 돌봄노동자를 위해서는 2011년 ILO에서 채택한 ‘가사노동자 협약(Domestic Workers Convention)’ 및 권고안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노동법제도의 보호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돌봄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통해 지역 돌봄공동체 구축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친밀성을 여성적인 것으로 의미화하고 이를 통해 성차와 성별분업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여성의 관점으로 비판하고, 돌봄을 양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언젠가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행복하고 존중받는 돌봄의 사회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송이(2003).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 연구: 감정노동과 관계적 노동 속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82권 제1호.
김은정(2012). “사회적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현황과 특징”.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정진주 외, 한울.
남윤인순·한국여성노동자회·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한다』, 2013년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문현아(2012). “글로벌 사회변화 속 전대화된 돌봄노동의 이해”.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정진주 외, 한울.
박홍주(2009).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돌봄노동의 의미구성과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미간행)
윤자영(2012).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현황과 과제”.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페미니즘연구』, 제11권 2호.
정진주(2012). “제가 요양보호사”.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 정진주 외, 한울.
황덕순(2013). “돌봄노동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월간 노동리뷰』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Fisher and Tronto(1990). “Toward feminist theory of care”. Circles of care: Work and Identity in Women’s Lives. Emily Abel and Margaret Nelson(d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Hoschschild, A.(1983). The Managed Heart, Berkel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itty, E. Feder(2002). “Lover’s Labor Revisted”, Hypatia., 17(3).
Rorber, Judith(2005). Breaking the Bowls: Degendering and feminist Change. New York, London: W. W. Norton & Company.

글을 쓴 박홍주는 여성학과 박사과 감정노동, 여성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관한 논문이 다수 있으며, 아시아 각국의 이주정책과 이주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노동과 페미니즘』(공저), 『여성학』(공저), 『위기의 노동』(공저), 『2030세대 행복의 조건』(공저),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는가』(공저),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수립』(공저) 등이 있다. 현재 서강대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강사로 있다.



남녀임금격차, 현실 그리고 남겨진 과제

김은경 /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여성근로자들은 돌봄, 비영리기관 등 저임금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소위 여성의 일, 여성분야로 불리는 이 분야는 통상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 다양한 영역에 분포한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현실을 임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남녀 임금 수준 비교를 통해 차별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남녀 동일임금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남녀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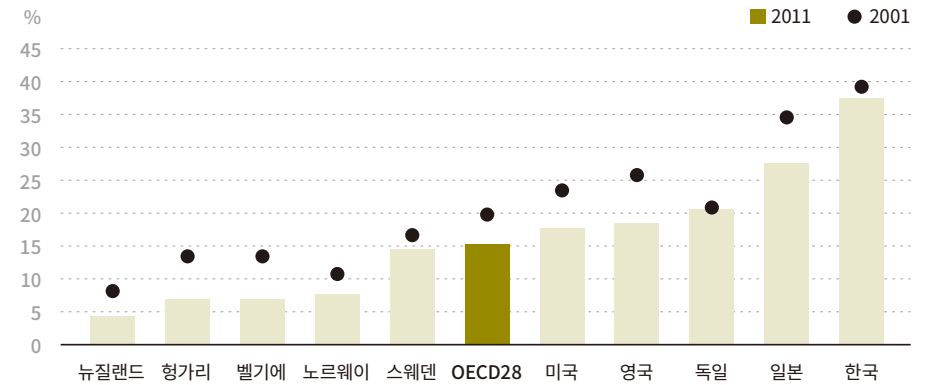
2010년 OECD 통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남녀임금격차Gender Pay Gap는 39%에 이른다. OECD 평균인 16%의 두 배를 넘으며, 3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단위: %, 출처: OECD 통계

연도	2000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임금차이	40.4	39.1	39.8	38.8	38.3	38.5	37.8	38.8	38.9	39	37.5	37.4

<그림1> 연도별 남녀 근로자의 임금 차이 1

통계는 남성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남성임금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의 임금이 61%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연간 근로일수 260일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우 1년을 일하고 추가로 100일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림2> 2011년과 2012년(또는 최근) 전일제고용자 평균임금 기준 남녀임금차이 2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Gender Gap Report' 결과를 통해서도 임금격차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성별간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격차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111위에서 6단계 하락한 117위로 나타

1. 가장 최근 통계 (2012년)에 의하면, OECD 자료에서는 37.4%, 대한민국 통계청의 경우 35.6%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http://www.oecd.org/gender/issues/genderequalityinemployment.htm>

났다.³ 주요 4개 항목 가운데 경제활동 참가 및 기회에서 124위로 가장 낮았고, 교육에서는 103위, 건강과 생존에서는 74위, 정치참여에서는 93위였다. 세부 항목 가운데 성별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져 125위에 머물렀고 고위직 여성 임원 비율도 113위에 그쳤다. 성별 출생 비율은 122위, 의회 내 여성 정치인 수는 91위, 정부 고위직 수에서도 94위로 저조했다. 전문직 여성 비율은 물론 내각 여성 비율도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표출되는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금재호(2013)는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평가”에서 인구 및 가구 요인, 교육 및 근속기간, 기업 규모, 산업 등으로 나누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원인을 교육기간과 근속기간으로 지적하고 있다.⁴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이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문화의 구축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고, 정규직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상승이 성별임금격차를 정체시킨 원인의 하나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개선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제안했다.

그동안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성의 경제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남녀 간 임금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여성 경제활동증가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격차는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1980년 이후 1998년까지 임금의 성비가 계속 높아져 왔지만 이후에는 0.623~0.643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3. 1위는 아이슬란드였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20위, 영국 26위, 중국 87위, 일본은 104위이다.

4.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12년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남성은 월평균 임금이 255.9만원인 것에 비해 여성은 149.7만원으로 남성의 58.5%에 불과(41.5%의 격차).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늘어나 45-47세에 정점을 기록한 뒤부터 임금이 하락하나 여성은 30-32세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나이에 따라 임금이 감소함. 이로 인해 20대까지는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지만 30세 이후부터 성별임금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해 40대의 경우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침. 남녀 간의 특성 차이에 의한, 즉 모형으로 설명 가능한 임금격차(61.2%)는 연령, 혼인상태, 거주지역 등 인구학적 요인이 25.9%로 가장 설명력이 크고, 그 뒤를 근속기간(13.6%), 기업규모(8.9%), 산업(7.1%), 비정규직 여부(5.5%) 등이 따름.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은 임금격차 38.2%의 모두를 성차별로 간주하는 것은 한계임. 반대로 근속기간이나 비정규직 여부, 기업규모에서의 성별 격차가 성차별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음. Oaxaca and Ransom(1994) 방법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의 분석 결과는 비록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있어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함. 금재호,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평가’, pp. 68-73. 여성고용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11차 동북아포럼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1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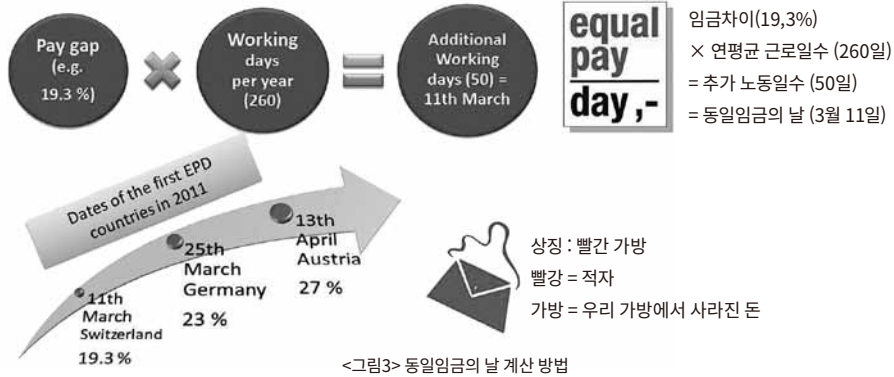
1998~2008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진출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가 정체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격차의 9.9%는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과 같은 인구 및 가구 요인으로 설명되며, 14.7%는 교육기간의 차이, 그리고 14.4%는 근속기간의 격차로 설명된다. 또한 남녀간 정규직 비중의 차이는 임금격차의 4.1%를 설명하고 있고, 기업규모가 4.0%, 그리고 산업이 5.5%를 설명한다. 따라서 교육기간과 근속기간이 남녀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국사회 남녀간 임금격차의 심각성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이해의 수준에 있다. ‘동일임금의 날’ Equal Pay Day 은 이와 같은 몰이해와 무관심을 넘어 여성의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으로, 차별에 대한 현실 인식과 제도 및 정책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동일임금의 날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나라별로 상이한 현황에 따라 다양한 행사와 대중운동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임금차별의 메시지를 담은 비디오는 물론, 가계 적자를 상징하는 빨간 옷, 빨간 가방 등을 공유하며 상호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른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은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2. 차별 드러내기 : ‘동일임금의 날’

유럽연합은 2011년부터 ‘유럽 동일임금의 날’을 만들어 임금차이의 변화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직 여성클럽 유럽연맹 BPW Europe 의 주도하에 실시되는

‘유럽동일임금의 날’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임금차이를 토대로 날을 정하고, 임금차이에 관한 정보제공과, 이벤트 조직, 정부기관과의 미팅 등을 주관하고 있다. 2011년 3월 5일, 2012년 3월2일, 2013년은 2월 28일 등 매년 달리 정해지는 날짜를 통해 임금차이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하는데, 남녀임금차이가 19.3%인 스위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임금차이 19.3%에 연간 근로일수 260일을 곱하여 나온 50이라는 숫자가 추가근무일수가 되며,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50일째인 3월 11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정하는 것이다.



<그림3> 동일임금의 날 계산 방법

2005년, 유럽국가 중 가장 먼저 동일임금의 날을 개최한 벨기에에는 2014년 현재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여성권리운동단체인 지칸트 Zijkant 의 주도하에 출발한 벨기에 ‘동일임금의 날’은 임금구조와 관련한 논쟁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내며, 일반 대중과 관련분야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어 임금차별을 주제로 한 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일반인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관계자들 간의 토론과 워크숍을 기획하여 관련운동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10여 년의 과정을 거치며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자리한 벨기에 ‘동일임금의 날’은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통계 수집과 관련 연구를 요구하여 변화의 추이를 감시하고 있다.

국가	임금격차	국가	임금격차	국가	임금격차	국가	임금격차
벨기에	10	그리스	15	리투아니아	12.6	포르투갈	15.7
불가리아	14.7	스페인	17.8	룩셈부르크	8.6	루마니아	9.7
체코 공화국	22	프랑스	14.8	헝가리	20.1	슬로베니아	2.5
덴마크	14.9	크로아티아	18	몰타	6.1	슬로바키아	21.5
독일	22.4	이탈리아	6.7	네덜란드	16.9	핀란드	19.4
에스토니아	30	키프로스	16.2	오스트리아	23.4	스웨덴	15.9
아일랜드	14.4	라트비아	13.8	폴란드	6.4	영국	19.1
EU 27	16.4						

단위: %, 출처: OECD 통계, 2012

<그림4> 유럽연합국가 남녀임금격차 현황 5

2009년에는 BPW 세계연맹 주최로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국제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이 열렸다. 본 행사를 통해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은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로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서도 지역별 이벤트를 개최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이후 캠페인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유럽 이외의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3년, 19대 국회를 통해 동일임금의 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성아동분야와 관련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구성된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

5. 유럽 국가들의 남녀임금차이는 나라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슬로베니아, 폴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10%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영국, 슬로바키아, 체코, 그리스, 독일,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등이 20%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차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라트비아와 포르투갈 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현재,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60%를 상회하며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변화 속에서도 남녀 임금차이는 지속되고 있다. 출처 : Eurostat 2012 except for EL (2010)



<그림5>
 “루이즈가 결국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2005년 3월 31일



<그림6>
 “여성 25% 세일 중”
 2008년 3월 31일



<그림7>
 “여성은 3시 5분부터 무임금 노동”
 2009년 3월 27일



<그림8>
 “여성은 적게 벌고, 오래 일한다.”
 2011년 3월 25일

전자문위원회⁶의 결과보고를 토대로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매년 5월 넷째 주 고용평등주간의 월요일로 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개정시안
<신설>	제6조의4(동일임금의 날)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일임금의 날을 5월 넷째주 월요일로 한다.

<그림9>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7

여성의 임금불평등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거 없는 차별에서 비롯된 부분과, 직종 차별이나 경력단절, 저임금 및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 등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불평등 요소들의 종합적 결과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심각한 임금격차 수치를 비해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미약하므로 인식을 제고할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6. 국회의장 여성 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깊은 관심 하에 지난 1월 25일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되었다. 동 자문위원회는 입법부가 대한민국의 발전, 평등, 평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성평등을 기본가치로 삼아, 여성 아동의 권익증진을 앞장서서 이끄는 국정의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여성정책과 아동정책 전문가로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16-18대 국회의장 자문기구 운영사례: 입법지원조직개선기획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의정활동지원강화자문위원회.
7. 제6조(정책의 수립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4호 일부개정 2014. 01. 14.)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 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확대이다. 그러나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0%, 저임금 및 고용불안, 단시간 노동의 2배 증가 등 여성 불평등과 열악한 여성노동시장의 문제를 개선해야만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경제활동의 선순환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보다 확대 강화하여 여성 경제활동의 질을 개선하고, 열악한 여성 고용의 상징인 여성의 임금불평등의 문제를 사회가 주목하고 이 문제 해결의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동일 임금의 날 제정을 제안한다.⁸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한국의 여성 임금불평등 문제는 기업의 급여수준별 분석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30대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임금수준을 남성과 비교한 보도에 의하면, 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수준에서 남성은 약 28% 정도인데 비해 여성은 72%나 차지하며, 거꾸로 월 350만원 이상 급여수준에서 여성은 16.5%에 불과한데, 남성은 83.5%를 차지하고 있어 30대 기업에서 조차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불평등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그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한국 동일임금의 날’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여성의 저임금 현실을 고려할 때, 그 법제정의 중요성과 시급함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3.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

임금차이의 원인과 관련한 연구는 각 사회가 처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된 성역할 고정관념 및 전통적인 성역할에 근

8. “동일임금의 날 제안취지”,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위원회 결과보고서』, pp.49-76. 2013. 9.

거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적인 원인들에 의해 임금 차별이 발생함을 밝히고 있다. 수평적 차별 (직종 간 문제), 수직적 차별 (조직 내 차별), 시간제 근로, 가족 관계, 직업 훈련, 경력 단절, 나아가 기타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와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 중의 52%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⁹ 2014년 3월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제작된 비디오 <47초 만에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이와 같이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이른바 단순 차별의 심각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¹⁰

‘동일임금의 날’이 제정된다고 해서 차별적 임금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일 것이다. 분명 동일임금의 날은 남녀임금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¹¹ 성평등과 동일 임금에 관한 국가 전략 수립, 남녀 임금 격차 보고서 Gender Equality Reports 작성, 기업의 임금격차해소에 대한 성평등 계획 수립 및 감사, 특별법 및 단체협약, 임금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체계의 투명화, 동일임금의 날, 성인지적 직무평가와 분류체계 등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가능한 지침 제공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임금차이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와 관계 당사자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대중 여론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남녀임금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를 조직하고,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도 개최한다. 논쟁거리가 될 만한 내용들을 포함한 비디오도 제작하고, 패션몰에서 음악과 춤을 선보이기도 하고, 유명인사들의 패션쇼와 인터뷰도 진행한다. 임금차이를 빗댄 연어 요리도 판매한다. 평등정책전담부서에서 제작한 공식 로고도 있고,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 복권과 우표도 발행한다. 노조와 정당, 여성단체

9. <http://www.equalpayday.be/NL/documenten/dossier2014EN.pdf>

10. EPSU (European Federation of Public Service Unions) member ‘Kommunal’ produced a video “How to get a raise in 47 seconds”. Happy International Woman’s Day! Video with Annelie Nordstrom, President of Kommunal. <http://www.epsu.org/a/10263> 또는 <http://www.youtube.com/watch?v=I08p249VuI>

11. Tackling the gender pay gap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2013. pp. 17-21.

들이 대규모로 참여하여 캠페인을 벌이며, 모든 인터넷에 (“매일 15:51분부터 무임금 노동. 정당한 임금을 받자”) 메시지를 게시하기도 한다. 전국 주요도시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공영방송과 유명 백화점등과 함께 빨간 가방을 배포하는 행사도 진행하고, 빨간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 콘테스트도 개최한다.

‘동일임금의 날’의 의도와 목표는 분명하다. 인식제고와 참여를 통해 정부와 기업으로 하여금 임금 정책을 바꾸도록 영향을 미치고, 미처 알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임금차이를 언론과 기업 내 주요 이슈로 만들어, 미디어의 주요 의제,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진행된 사례들을 통해 ‘동일임금의 날’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데, ‘동일임금의 날’을 비교적 일찍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 최근 3년간 임금차이의 감소는 물론 언론과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남녀동일임금은 여전히 현실이 아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차별적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녀 임금의 현황 파악과 연구, 분석이다. 이는 공식적이고 신뢰할 만한 통계를 기초로 가능하며, 이는 결코 사적인 차원의 일이 될 수 없다. 나라별로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을 통해 얻어 낸 공식보고서에는 임금격차의 원인과 해소방안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임금 차이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임금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 그러나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한국 동일임금의 날 제정’ Equal Pay Day Korea 을 앞두고 제정 취지에 맞는 활동 방향 및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동일임금의 날’은 남녀간 임금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목표로 실시된다.¹²

가. 인식 제고

남녀임금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

12. Equal Pay Day in Belgium, An international source of inspiration. pp.3-4.
http://ec.europa.eu/justice/gender-equality/gender-pay-gap/national-action/raise-awareness/index_en.htm

동일임금의 날은 임금차이를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들, 결과, 그리고 해결방안들을 강조하는 날이다. 나아가 임금차이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임금 자체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임금에 대한 논의가 터부시되는 것도 타파되어야 한다. 개별적 임금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공유되어야 한다.

나. 통계와 정보 수집 : 숫자가 전하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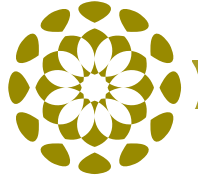
‘동일임금의 날’은 공식적이고 신뢰할 만한 통계와 연구를 통해 임금차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요구한다. 공식통계와 분석은 메시지를 강화하고, 협상 시 또는 정책수단을 강화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 사회개혁과 변화에 대한 자신감 회복

저임금은 단지 여성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자유롭지도 않으며, 임금불평등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 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역량 강화

임금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주체는 입법부, 행정부, 고용주, 노동조합 등이다.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법률과 법 집행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성차이에 대한 교육 강화도 필수적이다. 공공보육의 확대는 어떠한가. 육아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운데 이는 여성들의 (전일제) 근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한 경력단절은 당연히 임금은 물론, 승진과 임금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퇴직 후 낮은 연금으로 연결된다.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 인정과 재정적인 차원에서 더욱 공정하게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성인지적 평가시스템이 없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자의 건강권¹

문현아 /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임금차이를 줄이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¹³

첫째,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면서, 기업의 이윤추구에도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일은 기업으로 하여금, 능력 있는 노동자를 충원하는 일이며, 긍정적인 작업환경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인적자원 개발과 생산성, 경쟁력 제고는 물론, 기업이미지 향상과 가치 중심의 경영을 통한 소비자 만족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둘째, 임금의 평등은 경제 전반에 걸친 이윤의 극대화를 가져온다. 여성은 경제성장의 필수요인으로, 그들의 전문성과 재능은 사회, 경제 발전의 초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 임금과 노동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저평가된 여성의 노동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여성의 능력은 경제 사회 전반의 큰 손실이 된다.

마지막으로, 임금차이를 극복하는 일은 사회정의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로, 이는 보다 평등하고 결속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여성의 노동과 기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그들의 성공과 경제적 독립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성임금의 증가는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빈곤에 빠질 위험율은 65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 16%인 것에 비해 여성은 22%를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 있다면 무엇일까? *

글을 쓴 김은정은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법정대 정치학 박사로서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리더십개발과 젠더정치 담당),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교육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저서로는 『민주시민을 키우는 어린이정치』,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III』(공저), 『밀레니엄의 성정치학』(공저), 『녹색당과 녹색정치』(공저), 『소통문화의 지형과 지향』(공저) 등이 있다. 국회의장 공로패, 여성신문 미래를 이끄는 여성지도자상(2013년)을 수상하였다.

13. Why is it important to tackle the gender pay gap? http://ec.europa.eu/justice/gender-equality/gender-pay-gap/tackle/index_en.htm 또는 <http://www.youtube.com/watch?v=0fYQ9dE5Ok>

1. 들어가면서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사노동자협약(C189)이 통과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협약의 실행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가사노동자협약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라는 내용을 여러 조항과 정책의 측면에서 반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가사노동자협약이 2011년 국제노동권퍼런스에서 채택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라는 당연한 명제가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가사노동이라는 명칭이 있음에도 이들의 노동이 노동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한

1. 원고 뒷부분 일부는 문현아, 박주영(2013).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중 일부를 요약 발췌하여 추가하였다.

역사, 또한 이 노동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존재함에도 이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역사가 2011년 이전까지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이 채택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채택안을 적극 수용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예외 조항을 바꾸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과제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성과 노동에 대해 이 사회가 의미부여하는 가치의 체계를 뒤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쟁점인 셈이다.

왜 가사노동은 21세기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 중 몇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 여성들이 주로 하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즉 여성들이 하는 노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속에서 이 가사노동 역시 그 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생산노동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는 재생산노동으로 범주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여성들이 하는 노동이라는 점과 연결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재생산이라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생산 영역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상품에 대한 가치는 인정되는 반면, 보이지 않는 이른바 '서비스' 노동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덜 인정받고 있는 구조 속에서 가사노동도 그 일환으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비가시적인 노동이자 그림자 노동으로서 노동을 하는 현상이 공개적이지 않다. 집안이라는 영역은 일반 공장이나 식당처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과는 다르게 폐쇄적이며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공간이기에 그 속에서 인간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지저분하고 오염된 상태를 깨끗하게 변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러움'의 측면과 맞물려서 설명된다. 이 측면은 역사적으로 '깨끗함'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된 근대라는 시기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노동이 이런 더러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담당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 더러움으로 연결되어 평가되고 있는 것은 단지 사람에 대한 것에 국한되기보다 이 사회가 더러움을 깨끗함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2. 근대 이후 가사노동의 특징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5천 3백만 명에 달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이 수치는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규모인 셈이다. 이 중 대다수가 여성으로서 전 세계 여성노동인구와 비교하면 13명 중 한 명이 가사노동자(7.5%)로 추산된다.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전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하는 노동이 평가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도 그에 따라 저평가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사노동은 조금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동일한 가사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집에서 일을 하면 '무임'이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면 '유임'이 되는 특이함이 자리잡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유임/무임의 차이에 앞서, 집안에서 하는 노동을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보려고 한다. 가사노동이 사회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동'이라는 특성 이전에 '집'이라는 구조가 집밖의 '시장'이라는 사회에 비해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은 역사 이후로 늘 그러했다기보다는 근대사회,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집/시장으로 소위 공/사 영역이 분리

되고 시장이라는 사회의 영역이 ‘돈’과 연결되면서 돈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집’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다. 여성들이 이 영역에 남게 된 것은 운명이기보다는 여러 요소들이 뒤얽혀 변화된 것이다. 여성이 주로 가사일을 하면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게 된 것인지,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해 여성만 남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여성들만 했던 노동은 아니었으며 그래서 향후 여성들만 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노동이라고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3. 가사노동자 노동의 특징과 인권보장

가사노동은 사실상 가사노동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노동자 대부분이 본인의 집에서도 ‘집안일’을 하고,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객’이나 고용인의 입장에서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과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노동을 다르다. 이런 점을 ‘오용’ 혹은 남용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부터 가사노동을 ‘제외’해서 근로기준법의 예외조항으로 만들어 놓았다. 2011년 가사노동자협약이 만들어지기까지 다른 국가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현재 가사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으려면 가사노동이 국내 노동관계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가사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려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노동’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서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엄연히 현실에서 노동자로서 ‘급료’를 받으며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은 ‘노

동’이 아니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사노동의 ‘노동’의 측면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건강과대안 연구진은 작년에 가사노동자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가사노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문현아·박주영, 2013).

첫째, 노동시간의 규칙이 적용되는 노동이다. 이는 가사노동자관리협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정해진 노동시간에만 노동하는 규정을 받는 노동이라는 측면과도 상통한다. 특히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을 기본적인 노동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시간 규정을 받는 노동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추가임금을 협상할 때, ‘노동’을 더 가시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다.

둘째, 집안에서 하는 노동이지만,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하는 노동이며, 특히 결과에 대해 ‘평가’를 통해 성취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는 노동이다. 집안에서 발생하지만, 본인의 집안이 아니며, 그런 면에서 ‘집’이지만 이것이 ‘일터’라는 측면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즉각적이거나 때로는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있는 노동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가사노동이 갖는 특수성이자 한계로서 노동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비숙련노동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완수해야 하는 측면에서 노동을 어느 시간 동안, 어떤 노동을 해야 하는지를 고려하고 계산해서 적절히 분배하고, 자신의 노동력의 정도를 가늠해서 일을 해야 하는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노동이다. 그저 하는, 집안 일이 아니라 가정관리사로서 일에 대해 파악하고 적절하게 일의 분담을 정해서 해내야 하는 노동인 것이다.

넷째, 여러 돌봄노동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른바 서비스 노동이다. 서비스노동이나 돌봄노동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 중에 있는데, 특히 가사노동은 고객이나 고용인의 ‘집’을 방문해서 사적인 공

간에서 홀로 남아 일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적으로 ‘하층계급’의 사람들이 하던 일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어서 ‘상하’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는 측면이 덧붙여지는 대인서비스 노동이다.

이런 노동의 특징을 고려해서 가사노동자협약의 여러 측면이 한국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가사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4. 가사노동자 건강에서의 쟁점

1) 더러움과 불결을 견뎌야 하는 노동

청소와 관련된 여러 노동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노동으로 간주되는 맥락이 이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 더러움은 무엇보다 신체적인 부담, 즉 노동 강도의 강화로 다가온다. 이 더러운 상황이 더 크게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는 더러움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맞물린다. 팔머라는 연구자는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위생’이나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 사회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런 경향 속에서 이런 노동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을 ‘깨끗함’으로, 그 노동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럽다’는 오명을 씌우는 현상이 자리잡아가게 되었다고 설명한다(Palmer, 1989). 이에 따르면 중간계층이라는 경제적 위치가 ‘도덕적 우위’와 맞물리면서 더럽다/깨끗함의 이분법이 덧붙여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더러움’이 사회적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2)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와 자존감의 위축

대부분의 가사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데 대한 심적 부담과 무의식적 스트레스를 많이 토로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이 하

는 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의 불편함이 심적 부담이 되어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일을 하지 않는, 노동 일과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에서도 이러한 스트레스는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바꿔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비롯한 사회에서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내야 하는 사안으로 대안적 접근이 시도되기도 한다. 필리핀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사 사용인을 위한 대헌장Magna Carta for kasambahay 2005’(박지순 외, 2011: 162)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대헌장 제2장 제5조에는 ‘가사노동자는 육체적, 심리적 폭력 또는 가사노동자의 인간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떨어뜨리거나 비하하거나 저하시키는 기타의 행위 없이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헌장은 가사노동자가 존엄을 받는 존재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음을, 고객들 그리고 이 사회가 명심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다. 가사노동자를 ‘마구’,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거듭 강조될 필요가 있다.

3) 육체적으로 고된, 강도가 강한 노동-힘든 자세로 반복적으로 일하는 문제

대부분의 가사노동자들이 50대 후반의 연령대가 주를 이루는 현실 속에서, 육체적으로 고된, 강도가 강한 노동은 이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노동에서 일의 특성상 미는 자세,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쓰는 자세, 손목 관절을 많이 쓰는 노동, 허리에 부담이 가는 노동, 습진에 쉽게 노출된 노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깨, 무릎, 손목, 허리, 습진 등으로 만성 통증을 지니고 있으나 이들의 이런 통증은 ‘직업병’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증이 있고 문제가 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거나 치료할 방법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쉽게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괜찮아지기 때문에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심하게 병을 계속 키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통증의 만성화는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만성통증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작

업에서 발생하기 쉽다(메싱,2012: 173)고 이야기된다. 이런 특징이 가사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가사노동자들의 만성 통증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다치거나 산재의 위험이 높은 노동

가사노동자들은 화학세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세제의 강한 독성은 고객의 집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와도 결합된다. 독성을 인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약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집에 찌든 때가 많이 있거나 오염도가 심하면 고객들이 요구하는 ‘청결’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사용량을 줄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가사노동은 다양한 형태의 일을 서로 다른 공간을 경유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부딪히는 사고 속에서 상처 부위도 매우 다양하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거나 엉덩이뼈를 다치는 경우도 있고 무릎을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허리를 다쳐서 고생을 한 경우도 있었고 슬리퍼를 신고 벗는 과정과 걸치면서 발가락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금이 가거나 한 달 정도를 쉬고 산재의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지만 명이 들거나 팔 다리 등에 상처가 나는 경우에는 2주 동안 별 치료 없이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1,650명의 여성 가사노동자들과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치명적이지 않은 근로 부상과 관련해서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윤자영, 2011: 84). 이 결과에 의하면 가사노동자들의 경우 치명적이지 않은 근로 부상이 연간 7.3%인 반면, 일반적인 근로 인구의 경우 5% 정도였다. 부상의 절반이 장기간의 장애를 수반하지 않았지만, 조사한 가사노동자들의 38.1%가 2주 이후 다시 일로 복귀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를 고려하면 가사노동자들이 흔히 빈번하게 부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니게 생각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치명적이지 않은 부상의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서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 노동

가사노동자들이 아파도 그냥 일을 하는 이유는 일단 ‘병가’를 내면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 병가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병가를 낼 만한 구조적 조건도 아니지만, 이를테면 병을 이유로 일을 쉬는다고 해도 다른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 한, 쉬는 것에 대한 ‘이로움’이 없는 것이다. 일을 한번 거르면 고객의 집의 정돈이 안 된 상태가 더 악화되어 일의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전과 오후에 모두 일을 하는 경우 중간에 휴식시간도 없고 점심 식사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짊을 내어 병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아프다고 쉬는 것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된다는 무의식적 두려움도 있다. IL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65개국 중에서 9개국을 제외한 56개국이 노동법 또는 특별법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가사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사적이고 은밀한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적이고 인권보호에 필요한 근로조건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global standard}이다(하갑래, 2011: 221). 이렇게 볼 때 병가나 휴가 등도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기준에 포함되어 고려되면 더 좋으리라 생각한다. 가사노동자의 상황을 기반으로 다른 시간제 노동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병가나 휴가 제도가 어떤 식으로는 자리 잡아 개인의 몸 상태를 점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사회적 인정과 건강권의 보장을 위해

가사노동이 사회적 인정을 받고 노동자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안정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 공식적으로 가사노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홍보한다면, 수요의 안정화와 ‘공적’인 망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고용의 안정화와 더불어 중요한 또 다른 사안은 임금의 인상과 고정수입의 확보이다. 사실 현재 가사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매우 낮다. ILO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사노동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으로 각 국가의 평균 보수에 비추어 대부분이 50% 미만이며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ILO, 2010b: 1, ILO, 2013: 68).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의 폭을 크게 잡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워낙 저임금인데다, 고용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서 노동자들 대부분이 이미 기대 수준을 상당히 낮추고 있는 데 따른 현실적 요구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산재보험의 적용 및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자 96.8%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박지순 외, 2011:2). 4대 보험 중에서 가입 희망 보험의 1위는 고용보험(55.6%)이며 그 다음이 산재보험(51.6%)로 나타났다(박지순 외, 2011: 57). 이는 가사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고용의 안정과 산재보험의 적용이 다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사회에서 노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인정투쟁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이 사회에 전하는 울림은 여전히 아득하다. 노동을 하고 있고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 사회의 모순에 대해 인터뷰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회적 인정의 측면을 강조했다. 가사노동자도 일반 직장인하고 동일한 눈높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가사노동은 현재 맞벌이,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중요한 노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가사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대안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사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중간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다. 기지개를 편다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가사노동자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가사노동자들이 겪는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주목해야 하는데, 이

들의 연령대와 일상적인 산재노출 위험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검진과 관리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소 또는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약 또는 제도적 연계를 통해 가사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중점적으로 검진, 관리할 수 있다면, 해당지역 가사노동자들의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사서비스의 질적 측면까지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건강권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앞서, 베트남의 가사노동자 관련 노동법 조항(Labour Code section 139)을 언급한 바 있다.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혹은 지역차원에서 가사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공식적 제도화를 꾀할 경우, 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가사노동자가 몸이 좋지 않거나 사고를 겪는 경우, 그 책임을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을 택하는 베트남의 사례는 매우 유용하다.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사용자들이 가사노동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윤자영, 2011: 85) 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역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6. 일단락 지으면서

가사노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면 일이 몸이 힘든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고객과의 갈등이나 모멸감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 고객과의 갈등의 기저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직업이 아니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노동은 계약관계이지, 신분적으로 상하관계이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조합도 없고, 정규적인 구조를 통하지 못하는 등, 여러 맥락에서 노동자로서의 힘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관계는, 흔히 말해지는 대로 ‘갑-을’관계로 변모된다. 가사노동자의 현실은 특히 이런 맥락에서 다른 노동

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근로기준법에서부터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고 심지어 평가절하 되는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법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필리핀에서 통과된 ‘가사 사용인을 위한 대헌장’에는 ‘가사노동자는…… 가사노동자의 인간 본질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떨어뜨리거나 비하, 저하시키는 행위를 받지 않고 제대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다. 한국사회도 이런 생각들을 기본으로 가사노동자의 노동과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박지순 외(2011). 『가사사용인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문현아, 박주영(2013).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윤자영(2011). 『가사사용인의 근로실태 및 보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almer, Phyllis(1989). Domesticity and Dirt: Housewives and Domestic Servants in the United States, 1920 - 1945.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글을 쓴 문현아는 현재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이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최근 공저로는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봐주나』(2012, 한울), 저서로 엄마들에 관한 인터뷰를 토대로 한 『엄마도 때론 사표내고 싶다』(2012, 지식노마드), 번역서로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연구 『세계화의 하인들』(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저, 2009, 여이연) 등이 있다. 여성과 관련된 가족, 노동, 건강 등의 쟁점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YWCA 돌봄회원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인권¹

곽지영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
승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문제제기

출산율의 하락과 여성의 취업 증가 그리고 고령화라는 사회적이고 인구학적인 환경 변화는 더 이상 돌봄을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복지국가는 가족 내 돌봄노동을 공적인 영역에서 재구조화하였고,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돌봄노동’은 ‘환자, 의존적인 노인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의존자를 돌보는 모든 활동’(Daly, 2001)으로 정의되었다. 즉 복지국가에서 제도화하려는 돌봄노동의 영역은 아이, 노인 그리고 환자와 같은 의존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

1. 이 글은 ‘YWCA 돌봄 지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YWCA 돌봄 회원들의 노동 인식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곽지영(2014), “YWCA 돌봄회원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인권”, 『제4차 YWCA 돌봄정의포럼 자료집』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으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며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자는 전 세계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 중의 하나이다. 국제노동기구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가사노동자는 약 5,260만 명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를 합하면 1억 명에 달한다. 국내에도 30만~60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있지만, 이들 모두 가사노동이 공식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법적인 보호 장치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을 포함한 모든 돌봄은 개인에게 단순히 소비되는 상품과는 달리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은 공공재로 볼 수 있다. 돌봄이 사회의 공공재이므로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메커니즘에 단순히 맡기기보다 사회(국가)가 공공재의 시장을 규제하고 관장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유로 법적 장치를 통해 가사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국가가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거나 일반 노동관계법령을 가사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2011년 6월 16일에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팬찮은 일자리 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사노동협약’을 보충하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팬찮은 일자리 권고’도 함께 채택되었다.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8개의 협약과 권고안 중 거의 대부분이 가사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1호 협약(근로시간), 제131호 협약(최저임금), 제132호 협약(유급휴가), 제155호 협약(산업안전보건) 등이 가사노동자를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가사노동협약과 가사노동권고의 채택은 노동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사 서비스 종사자들은 대부분 비공식 부문

에 종사하며, 비공식 부문은 고용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고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돌봄노동의 영역에서도 돌봄을 받는 사람에 근거해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노동에서 가사돌보미의 경우는 공공화의 대상이 아니라 시장화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 및 비정규직 보호의 논의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가사 서비스 종사자들은 산재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판매직의 경우 40대가 되면 자영업이 아니면 취업이 어렵고 청소직은 대부분 용역업체로 넘어간 상태라서 결국 일용직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요식업의 경우도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이 많고 높은 노동강도로 인하여 고연령일수록 체력적인 한계로 취업 유지가 어려워져 결국 가사 서비스직이 최선의,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서 새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기존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적 일자리로 끌어올리는 편이 고용의 확대와 안정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최근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완전실업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불안정고용이자 근로빈곤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쉽게 진입하는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공식부문의 노동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식적인 돌봄노동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경험을 통해 현행 돌봄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보고자 한다. 이

러한 경험을 근거로 돌봄노동의 범위를 특정 대상으로 한정짓지 않도록 개념을 확대해서 가사서비스도 공공화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YWCA 회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1. 살림돌보미를 시작하게 된 계기

갑작스러운 집안사정으로 경제적 가장 역할을 담당하게 돼서 시작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그 시작했을 때가 IMF터졌을 때예요. 그때 인제 우리에 아빠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샷시 유리를 해요. 근데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힘들었고 그때 제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망했어요. 그래 가지고 손해를 봐 갖구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YWCA 여기에 소속해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분 소개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지 않을래.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그때 그렇게 해서 친구소개를 받아 가지고. (돌봄경력 14년, 62세)

자녀들의 교육비 등 집안 살림에 보탬을 주기 위해 시작

아이들 크다 보니까 교육 문제 때문에 그게 인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이 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혼자 벌어서. 근데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사교육비나 그런 거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 아빠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찰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둘째딸이 약기 쪽을 하는 아이라 그런 것 때문에 또 검사검사 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봄경력 3년, 47세)

경력이나 자격증 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시작

집이 Y 옆이다 보니까 지나다니면서도 보고, 신문 보니까 구인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한번 들어가서 제가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작을 해봤었어요. 자꾸 나가서 뭘 해보고 싶은데 제가 뭐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

고, 그렇다고 여기가 넓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까운 거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돌봄경력 13년, 55세)

길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작

40대에서부터 식당일 다니다가 우연히 언니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일이 힘 더 들더라고. 그래서 언니 이거는 길게 하는 일은 아니고 딴 쪽으로 해 봐야 되는데, 차라리 살림돌봄이 좋더라 이리데예. 그러던 차에 작년엔 연결이 돼서 나왔죠. 나왔는데 진짜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돌봄경력 1년, 53세)

노후대책을 위해 일을 시작

가만 놀면 좀 답답고. 그래서 항상 다만 얼마라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될라고 노력하는 평범한 이유로. 하루라도 젊을 때 열심히 좀 해서 노후대책도 하고. (돌봄경력 1년, 53세)

2. 살림돌보미를 지속하게 된 이유

안 별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함

IMF 터지고 계속 힘들었잖아요 경제가. 그런데다가 남편이 샷시 유리를 하니까 그때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IMF 터지고 나서는 이사도 안 가고 그러니까 저희 아저씨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 내가 안 별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였어요. (돌봄경력 14년, 62세)

아이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엄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속

엄마도 힘들어서 직장생활이라고 나갔는데 힘들어서 끊는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사실은 보여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아무래도 참교육이 아닐까 싶어서 힘들 때도 이겨냈던 것 같아요. (돌봄경력 3년, 47세)

자녀양육과 집안일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얘기를 돌봐 줘야 되는데 회사를 가면 매어있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나오게 되면 얘기를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는 오전만 해도 회사보다 벌어드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돌봄경력 14년, 62세)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자부심

저도 맨 처음엔 애들 두고 오는 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애들이 일하는 엄마를 보고 경제관념도 생기고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커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집 아저씨 사고 나고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 일 해서 내 힘으로 벌어들여 자식 공부시키고 집도 사고 그랬어요. (돌봄경력 31년, 62세)

구인자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돌봄을 제공한다는 자부심

처음에는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말하면 쪽팔린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좀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을 제가 대신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당한 부분도 있고 자부심도 갖고. 내가 어떻게 보면 물론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뭔가 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돌봄경력 3년, 47세)

직업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일한다는 자부심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문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내 자리는 제가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확보하는 거지 남이 갖다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의식이 아무래도 투철하면 그거를 내 직업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딴 사람들보다도 월등해야 된다는 사고방식 차이인 것 같아요. (돌봄경력 3년, 47세)

내 집같이 생각하며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재미있는 거는 깨끗하게 치워 놓으면 즐거워져요. 집이 처음에는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전쟁 터진 집 같거든요. 그 지저분한 게 정리가 안됐잖아요. 그래서 정리 탁 해놓고 나면 나 혼자 좋은 거지 그런 게 좋은 거지. 그 맛에 하는 거죠. (돌봄경력 13년, 55세)

3. 살림돌보미를 하면서 어려운 점

구인자들이 사람 차별한다고 느낄 때 서러움을 느낌

엄마들이 가사 도우미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참아야 되요. 참고. 네 알겠다고. 네 그럴게요. 절대 반말 안 써요. 항상 존댓말 써주고. 어쨌거나 거기는 쓰는 입장이고 도우미기 때문에 반말은 안 쓰게 못쓰게 되더라구요. (돌봄경력 14년, 62세)

구인자들의 무리한 요구

자기도 팔 아파 못하면서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을 조금 존중해 주고 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걸레를 딱 던져요 닦으라고. 무릎이 다 나가죠. (돌봄경력 1년, 53세)

구인자들의 요구에 맞추지 못하면 어려움

일을 못하면 계속 구인자들이 불만견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돌보미들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 서로가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서비스업이니까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거의 못견디더라고요. (돌봄경력 13년, 55세)

구인자와의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려움

첫째는 구인자가 원하는 거를 먼저 해주라고 하죠 항상. 오늘 구인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해주라고. 사실 구인자가 바라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좀 쉽고 눈에 띄는 걸 먼저 하는 거 그제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구인자가 원하는 걸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돌봄경력 13년, 55세)

의심의 눈으로 감시하는 구인자

누가 와서 뭐 가져간다 그럴 때는 그 집안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잖아요. 그럴 때가 가장 난처하고 가장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기 형광등 같은 게 없어졌다 행주 같은 것들도 없어졌다 그리고. 뭐. 참기름이나 물엿의 양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어떨 때는 속상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사실. (돌봄경력 3년, 47세)

구인자의 이상한 요구들

내가 시간을 초과를 해서 힘들게 해 줬어요. 근데 40분을 초과를 해서 해 주니까 들어와서 어머 여태 안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저기, 조금 일하다 보

니까 늦었어요. 이라고 서로가 좋게 하고 왔는데, 그 다음번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면 먼젓번에 화장실 변기 청소가 하나도 안 돼서 자기가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마음을 읽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40분씩 더 하고 갔는데. 그러면 나보고 그 집에서 잤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돌봄경력 11년, 58세)

다른 도우미의 험담을 하는 구인자 때문에 어려움

우리 도우미 미워했던 집은 거기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는가 봐요. 내 없을 때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그 말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돌봄경력 10년, 54세)

힘든 일과 갱년기 우울증이 겹쳐 와서 힘들

일도 힘들었고 남에 집이라서 일단.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한 일 년만 하자 했는데 이제 14년이 된 거구요. 선 셋 되니까는 갱년기가 되고 폐경이 되더라구요. 그때는 우울증이 오더라구요. 우울증이 오니까는 그때 일도 하기 싫고 그때가 고비였어요. (돌봄경력 14년, 62세)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그만두기도 함

이렇게 일을 하면 쉽고 돈도 많이 벌고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는 어머 나도 해야지. 그러고는 담벼들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고 그러면 그것도 안 힘들고 남의 돈을 어떻게 받아오냐. 남의 주머니에서 꺼내오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힘 안들이고 노는데 돈 주는 사람이 있냐고. (돌봄경력 14년, 62세)

아파서 일을 쉴 수밖에 없을 때 어려움

허리를 삐끗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뭐 무거운 거 들지 않는데도 순간적으로 뭘 딱 하다보면 삐끗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근 한두 달 일을 못했었어요. 오래 나가던 집 그런 집만 한 두 집씩 가고 거의 뭐 놀다시피 했는데. 아플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돌봄경력 13년, 55세)

사고로 다쳤지만 일을 지속해야 할 때 어려움

참치캔이 제껴진 채로 분리수거 소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박스인지 병인지 막 섞어서 해놓으니까 내가 그걸 미처 못 본 거야. 나는 그냥 살짝 스친 줄 알고 빨리

눌렀는데 피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섯 바늘 꿰메고 그 손가락을 거의 못 쓰다시피해요. 지금 한 달을 기부스를 해가 있었고. 또 반기부스를 해가 있었고. (돌봄경력 13년, 55세)

오랜 노동으로 신체적으로 무리가 와서 어려움

지금은 작년부터 제가 일을 많이 줄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을 오래 하다보니까 제가 손목하고 손가락에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일을 인제 많이 못해요. 많이 하면은 손목 자체가 벌써 힘을 못 줘요. 목에 무리가 오고 이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손 무리하게 쓰지 말라고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돌봄경력 13년, 55세)

구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한 어려움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그래야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모르고 갔다가 너무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 안하고 갔다가 반찬 쪽을 더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애기 있고 할머니가 있고 이런 대식구가 있는 상황인 건 모르고 갔다가 너무 벅찬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가면 그것도 아예 생각하고 갔으니까 하고 할 수 있는데...

(돌봄경력 10년, 54세)

추가 노동시간에 대한 정확한 보상체계가 없어 어려움

그 시간 추가되는 것 있잖아요, 그 시간 추가되는 게 그쪽 회원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무시를 하고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주는 건지, 아니면 알고서 그러는 건지, 시간 추가는 당연히 내가 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잖아요. 추가를 해서 하면 저 같은 경우 한두 번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시간이 추가가 되면 알아서 그 쪽에서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돌봄경력 6개월, 50세)

4. 살림돌보미 직업에 대한 가족의 반응

직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가족

창피하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지원은 잘해 줘요. 그런데 몸 아프다고 하면은 마음이 안 편하죠 아무래도. 저도 건강만 따라주면 저는 뭐 일하는 데에 대해서

겁나는 거는 사실 없어요. (돌봄경력 13년, 55세)

가슴 아파하는 가족

가슴 아파했어요. 저희 남편은 그랬는데 쪼끔 벌고 쪼끔 쓰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그냥 쪼름쪼름이 생기더라고요. 시작할 때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남의 집에 가서 혹시 아내가 좀 무시당하고 그럴까봐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거 같아요.

(돌봄경력 14년, 62세)

살림돌보미에 대한 인식이 바뀐 가족

저희 남편도 이제는 당신 그게 직장이 아니다, 사업장이지. 그러는 거예요. 사업장이다. 바뀌었어요. 애들이 뭐 창피하다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고마워하고. (돌봄경력 14년, 62세)

살림돌보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만둘 것을 종용

큰아들은 돌보미 일에 대해 이해하는 편인데, 둘째딸은 꼭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나가서 이런 일 한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둘째딸의 음악공부 지원을 하기 위해 돌보미 일을 하는 것인데 자식이 어떻게 엄마 마음을 알 수 있겠냐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돌봄경력 3년, 47세)

5. 살림돌보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직업의 하나로써 정착되어가는 과정

인식이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고. 예전에는 그래도 진짜 좀 있으신 분들이 도우미들을 많이 썼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집 별로 없잖아요. 직장 다니시거나 이러신 분들 거의 다 쓴다고 보는 거예요. 젊은 세대나, 나이 드신 세대나 뭐 하루 1주일에 한번 쓰나, 2번 쓰나 그 차이지 거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거 있으면 다 쓰더라고요. (돌봄경력 13년, 55세)

사회의 마지막 선택으로서의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음

가족들은 돌보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돌보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직도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돌보미는 정말 마지막 선택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더 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워요. (돌봄경력 3년, 47세)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내 직업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음

아직까지도 이래 공개적으로 하긴 좀 그렇고. 자기는 사장인데 하면 돌보미 하면 더 낮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그랬어요. 말은 안하고. (돌봄경력 1년, 53세)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공개하지 못함

조금 친한 친구들은 제가 돌보미 일을 하는 것을 알아요. 다는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일한다는 이야기 못해요. (돌봄경력 10년, 54세)

감추고 싶지 않아서 당당하게 이야기함

숨지는 않았는데 그때 저는 감추는 게 싫었어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계속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 보잖아요. 그럼 뭐 숨길 이유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어쩔거나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나 다른 무슨 회사에 가서 일을 하나 남의 집은 똑같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내가 진짜 거기서 벌어서 내 가족이 살고 내 아이가 공부도 할 수 있고 그게 최상이고 최고지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돌봄경력 14년, 62세)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공개

애가 대학생이 돌이고 중학생이 하나 있고 애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힘들어지고 집도 전세로 살고 있고 힘들니까 일해요. 내가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하거든요. 창피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여자 벌이가 이렇게 큰 벌이가 어디 있겠냐고. 정말 안 창피하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해. (돌봄경력 14년, 62세)

60세가 넘어서도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직업

너무나 좋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내 또래 다른 사람들은 60세가 넘으면 정년이 되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정년이 넘은 나이에든 왕성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 참 좋거든요. 또 모두들 YWCA에 대한 신뢰가 커서 제가 돌보미 회원으로 일하는 데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돌봄경력 31년, 62세)

6. YWCA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도움 정도

구인자의 불평이나 불만접수 등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됨

교육하는 중간에 다른 돌보미들이 무슨 실수를 했다 어떤 사고를 쳤다 이런 사례가 우리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이모가 옷을 하다가 세탁이 잘못 됐다, 화분을 깬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교육에 오면 매번 얻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돌봄경력 1년, 53세)

know-how를 공유하는 자리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노하우를 많이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을. 서로 터득을 해 갖고 얘기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깐 어떠니. 서로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다 주워듣고 그 방법을 다 해 보고 제일 나은 거를 찾는 거예요. (돌봄경력 11년, 58세)

멘토를 통해 일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배움

가는 집마다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저는 놀라 갖고, 이러면 내가 못하지 했는데 그레도 멘토 언니가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고. 그건 해도 되고 안 된다고 알려주고. (돌봄경력 6개월, 50세)

7. 나에게 YWCA는

일과 제 2의 인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곳

Y는 나라고 생각해요. 일을 찾고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일과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준 곳이라서 감사해요. Y의 돌보미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다른 일반 돌보미였다면 이렇게 일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돌봄경력 3년, 47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

필요로 하는 일도 주고 또 좋은 집도 또 이렇게 해서 돈 벌게끔 해 주시고 또 한 달

에 한 번씩 모여서 또 감사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삶도 북돋워주시고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이렇다고 Y는 이런 곳이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죠. (돌봄경력 14년, 62세)

도움이 되고 싶은 곳 YWCA

Y는 내 일할 목적으로 왔어요. 내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저번에 YWCA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했어요. 제가 딴 거는 못해도 Y일은 돕고 싶어요. (돌봄경력 11년, 58세)

믿을 언덕이 되는 YWCA

회사같은 거죠. 큰 회사같아요. 난 기분 너무 좋아요. (모두 웃음) 내가 이런 큰 회사에 직장에 있다는 게. 믿을 언덕이 되는 Y가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람이 있는거고. (돌봄경력 1년, 53세)

8. 살림돌보미로서 필요한 사회적 지원

4대보험 특히 산재보험의 필요

4대보험과 직업인으로서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체계의 변화가 필요해요.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해보험과 퇴직금, 그리고 산재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경력 3년, 47세)

퇴직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

저는 이제 십몇 년을 하다보니까 어쩔 때는 후회가 좀 많이 되요. 내가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어디 직장을 들어갈걸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직장에 들어가면 10년만 해도 퇴직금이 얼마예요. (돌봄경력 13년, 55세)

III

선진국의 관련 정책

1. 오스트리아의 가사사용인법 Hausgehilfen- und Hausangestelltengesetz

오스트리아는 가사사용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1962년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사사용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내용은 단체협약이나 최저임금요율 그리고 개별고용계약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완화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가사사용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컨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가사사용인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며 그리고 최근 근로계약수정법은 일부규정에 대해서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박지순외, 2009: 139).

2. 스위스의 가사사용인을 위한 표준근로계약

스위스의 표준근로계약은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특수한 유형의 근로관계에 대한 임의적 계약법으로 제정되도록 정한 스위스채무법 제35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박지순외 2009: 146). 표준근로계약은 근로관계의 성립과 내용 그리고 종료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한다(스위스채무법제359조 제1항). 스위스의 표준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가사사용인 사이의 비밀유지 의무와 안전보건의무, 직무전념의무 등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및 휴식, 임금과 손해배상, 사회보험관계와 근로관계의 개시 및 종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3. 스웨덴의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스웨덴에서 가사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시간 또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하게 되는 일들을 의미한다(손혜경,

2011). 스웨덴정부는 2007년 7월을 기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스웨덴의 일반시민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약 50%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2009년 1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의 50%만 사업주에게 지불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주 모두에게 국세청에 요청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 부문을 환급받도록 하였다.

IV

가사돌보미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한 과제

1.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과제:

가사사용인을 적용배제하는 노동관계법 개선

현행 노동관계 법률은 개별 가정의 사생활 보호, 근로감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가사사용인을 적용배제하고 있다(구미영, 2014).² 그러므로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제도처럼 가사서비스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공제제도를 만들거나 벨기에처럼 가사근로 공급구조 자체를 제도화, 산업화함으로써 일거리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사서비스업체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

2. 노동조건 관련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이 있다. 차별금지 관련 법률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법률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그리고 가사사용인을 적용배제하는 노동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근로자의 노동법 상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도 하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현행 사회복지 정책과 충돌한다. 셋째는 여성근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마지막으로 국제노동기준이 비적용된다는 것이다.

는 방법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적용배제 조항을 폐지하고 가사서비스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규정을 추가하며, 프랑스처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기 정책과제는 가사서비스 공급구조를 제도화하고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상 지위를 안정시킨다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 아래에서 수립, 시행될 때에 성공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벨기에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가사서비스종사자를 고용하고 4대 보험 및 각종 노동법상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표준계약서의 작성 관행의 정착을 통한 대안

가사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한에서는 보호 필요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 일반 가정도 근로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비록 관청의 감독과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사법적 구제까지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가사사용인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표준계약서 제도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표준계약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곽윤직 2003: 24; 권오승 2002: 135).

이러한 표준계약서가 실질적인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부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사권한과 실제로 표준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 조건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는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단계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보편적 복지로서 돌봄의 제도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의 도입을 통한 대안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는 가사서비스가 양성평등 증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양성평등의 경제적 목표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동등한 조건과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사서비스업은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분야로 이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일을 할 경우 임금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또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가사서비스 세금감면제도의 도입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구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사서비스의 시장화가 아닌 공공화를 위한 좋은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구미영(2014). “가사서비스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과제”. 『노동법학』 제 50호.
 권오승(2002). 『소비자보호법』. 박영사
 권운직(2003). 『채권각론』. 박영사
 박지순외(2009). 『돌봄노동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취업경로에 대한 제도적 개선연구』. 노동부
 손혜경(2011). “스웨덴내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도입배경 및 사회경제적 효과”.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4월호.
 Daly, M.(2002). “Care policies in Western Europe”. M. Daly (ed.). Care Work: The Quest for Security. ILO (International Labour Office).

글을 쓴 **곽지영**은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8년 한국YWCA연합회 복지사업위원회의 위원을 거쳐, 2011년부터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학의집 운영위원장,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장애여성관련 연구를 현장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2010년 “YWCA은학의집 조사연구”를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YWCA 가사돌봄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로서 돌봄을 이야기할 때 전제는 돌봄이 더이상 가족 등 사적 영역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 아이 내 맘대로’가 더이상 우리사회의 보편적 규범이 아님을 전제로 할 때 보편적 복지로서 돌봄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내 아이’를 ‘우리 아이’로 내놓고 키워달라고 할 정도 수준인가? 4·16 세월호 참사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현 수준을 알아본다. 그 다음, 지금의 복지제도 수준을 전제로 할 때 돌봄의 사회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어서 돌봄을 보편적 복지의 한 영역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도출해 보도록 한다.

I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현 수준

1. 풍요 속의 빈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현 수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때 풍요는 제도의 외형적 발전 수준, 빈곤은 제도의 내적 수준을 의미한다. 우선 우리나라에는 연금, 의료, 산업재해, 고용, 장기요양 부문에서 5대 사회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은 취업활동자 대상 사회보장제도인데, 이에 더하여 취업무능력자 내지 취업능력 감소자 대상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폭력피해여성 등 요보호집단 대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게 규모가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역마다 고용센터도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학교 무상급식, 노인 기초연금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선진복지국가에서 구축한 사회보장제도의 외형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도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 체제를 갖추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복지 과잉’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복지에 의존해서 게을러질까 걱정을 한다. 전자는 복지제도 도입에 노력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지나치게 과찬한 결과이고 후자는 복지제도를 게으른 사람들에게 그냥 퍼주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 자신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위험한 불장난 정도로 걱정하는 결과일 것이다.

과찬이든 걱정이든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없던 복지제도들이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선진복지국가에서 복지제도가 국민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면 과찬도 걱정도 삼가는 것이 좋겠다. 특히 4·16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단순한 긴

급구조 능력이 아닌 일반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국민보호 능력의 현주소를 유추해 본다면, ‘모래 위에 짓고 있는 복지제도’의 모습을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때이다. 그러면 이제 제도의 ‘풍요’ 속에 숨어 있는 ‘빈곤’의 모습을 보도록 하자.

2. 복지제도의 빈곤

우리나라 복지제도 발달을 설명할 때 이런저런 현란한 숫자와 그래픽을 써가면서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 연금 수급액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변화 등등 많은 양적 자료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발전과 변화는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지제도의 빈곤을 언급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한다.

제도로서 복지, 즉 복지제도를 이야기하려면 ‘국가’의 의미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역할의 크고 작음을 놓고 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국가는 복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국가 체제로서 복지국가는 산업화·근대화의 산물이다. 그전의 전근대적 국가의 정당성은 종교와 신앙, 전통 그리고 관습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짐이 곧 국가’였던 전근대적 국가에서 백성은 신이 내려준 왕의 권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섬겨야 했던 임금님의 모습을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근대화는 권력의 세속화를 가져왔고 국가는 더이상 신의 권위, 전통과 관습에서 그 존립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백성이 요구하는 빵을 줄 수 없는 왕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기도 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등장한 근대국가 체제는 구체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에서 존립의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등장한 근대국가 체제가 바로 복지국가이다. 전통적 보호체제로서 가족과 종교가 산업화 과정을 통해 붕괴된 자리를 국가가 복지제도로 대체한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잉태한 근대국가 체제는 마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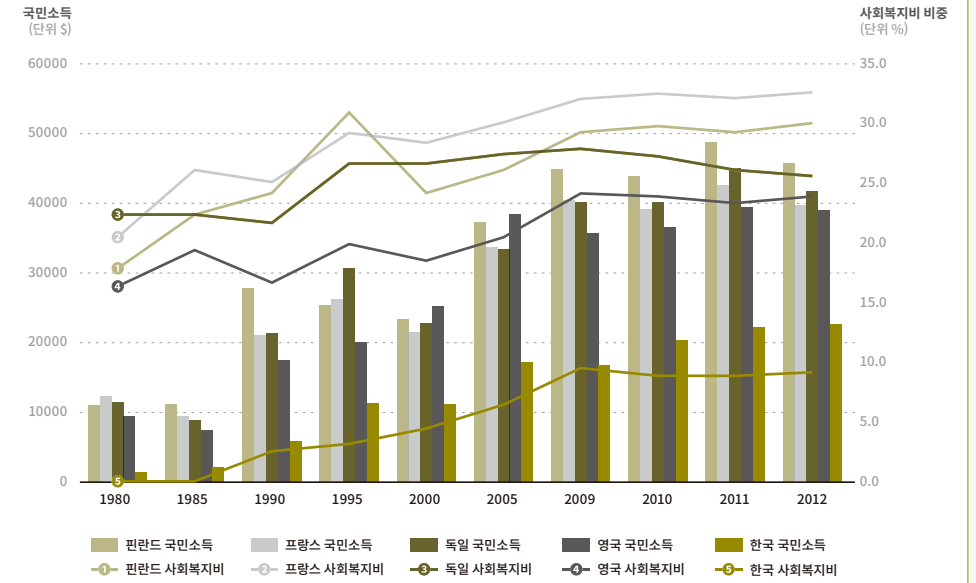
크스의 예측과 달리 복지국가라는 옷을 입음으로써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재산권 보장 → 참정권 부여 → 사회권 확보’로 이어지는 국가의 국민 보호 기능 확대 과정의 끝에 복지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역사적 과정의 하나로서 ‘국민보호 체제의 완성’을 복지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를 열심히(?) 수입하고 베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왜 ‘복지제도의 빈곤’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복지제도 도입 구조와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름’은 복지제도의 외화내빈(外華內貧), 속빈 강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과 똑같은 복지제도의 이름 도입은 허용하되 같은 수준의 보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주된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이름이 ‘가진 자,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과 언론, 기재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관료 및 전문가·기업인 등 시장주의자, 자수성가했다고 믿는 보통사람들’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파이가 커지면 나눠 주겠다.”는 약속을 수십 년 전에 하였지만, 지금도 그 파이를 자기끼리 나눠먹고 그렇게 키운 체력으로 자기 네만의 파이를 계속 키우고 있다. ‘파이 나눠주기’가 ‘낙수효과’로, 그리고 ‘민생 챙기기’로 변했을 뿐 기업은 고용 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민생에서 ‘민(民)’은 은행 용자에 짓눌려 살지 않는 소수의 민일 뿐이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짓말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 파이 키우기, 낙수효과, 민생 챙기기라는 거짓말에 희망을 걸고 있는 보통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하는가?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를 창출한 후, 경제성장을 한 후 나눠주겠다는 선의(?)를 왜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가? 경제성장과 복지제도는 분리되지 않았고 한 몸을 이루



<그림1> 5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 국가간 비교
(출처: OECD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면서 발전했는데,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외면하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프를 하나 보자. 화폐 가치의 절대성·상대성 논쟁을 떠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는 큰 의미를 갖는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났음은 물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핀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1980년대에 그 수준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라는 개념이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총량 중 사회복지에 사용한 비용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핀란드 등 선진 복지국가는 1980년대에 그 비중이 20%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3% 수준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개인적 체험을 물어 보자. 어린 시

절 용돈이 부족하여 친구들이랑 학교 앞 분식집에 들어가서 각자 조금씩 돈을 내어 아쉬운 대로 입맛을 채우고 나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떤 친구는 없는 돈이라도 기꺼이 내서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알미운 친구는 있는 돈도 가능하면 안 내고 먹는 것은 제대로 챙겨먹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유사한 경험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때 돈 제대로 안 냈던 친구가 나중에 돈 좀 벌었다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와 나누는 모습을 보았나? 아마 드물 것이다. 어려울 때나 어떤 때나 나누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도 나눌 줄 모른다. “내가 잘 나서 이만큼 벌었는데...”라는 자조의 미덕 신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투자 감각으로 강남에 아파트 사고 오피스텔 사서 돈 벌었으니, 그만큼 못한 사람은 자기 못난 탓에 못사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강남역 주변을 개발하고 그 지역으로 통과하는 지하철 건설에 국가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세금을 낸 ‘어두컴컴한 강북’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생각은 해 보았는가? 목 좋은 곳 아파트 값 오르고 오피스텔 임대 잘되는 과정에 나 혼자만의 투자 감각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성실하게 낸 세금으로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그 지역을 개발해 준 덕도 있는 것이다.

4. ‘실존적 책임의식’과 복지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내가 잘 나서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국가와 사회의 기여 때문이라는 ‘실존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구성된 국민부담률¹ 수준이 높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선진 복지국가 국민부담률은

1. 국내총생산 중 조세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세부담률이라 한다. 그리고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하면 국민부담률이 된다.

30~40% 수준이며,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그리고 기꺼이 자기 소득의 50% 이상을 넘는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한다. 지나치게 높은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부담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살지 않고 모나코 등 이른바 조세회피 지역에 가서 사는 부자들의 이야기는 그 나라에서도 화제거리일 뿐이다.

앞서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자. 실존적 책임의식 수준이 낮은 우리 사회지도층은 국민소득 1만 달러 넘어갈 때 사회 통합과 연대를 위해 사용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을 국내 총생산의 3% 수준 정도의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좀 더 벌어야 나눌 수 있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다. 이미 비슷한 수준의 국가 지도자들이 국내 총생산의 20%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과정에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어선 2010년 이후 그 비율은 9% 수준이다.

그런데도 복지 과잉을 떠들어댄다. 그리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이다. 이 주류에 대항한다는 비주류 복지국가주의자 중 상당수가 그래도 우리는 제도를 갖추고 복지국가 성립의 길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에 빠졌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우리 제도의 일부는 스웨덴식 사민주의 성격을 갖고 발전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이른바 민주화 정권 10년 사이에 볼 수 있었던 풍경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일 때 국내 총생산 대비 30% 수준을 오가는 복지비를 지출하는 구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문제제기와 분석이 없어도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선진 복지국가 제도의 이름을 가져오는 복지제도 외연의 확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보낸 꿀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탱자가 되어버리는 식으로, 선진 복지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제도의 지속성과 급여의 충분성을 상실해 버린 속빈 강정 같은 복지제도의 난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4-16 세월호 참사는 국민보호에서 그 정당성을 찾고 발전할 수 있었

던 복지자본주의 체제의 껍데기만을 지난 세월동안 열심히 수입했던 대한민국 국가가 얼마나 국민보호 기능에 무기력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복지관 몇 개 더 만들고 사회복지공무원 수 몇 명 더 늘리는 것은 복지제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런 액션만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0% 수준의 복지비 지출은 할 수 없다. 만약 2014년 4월 16일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20% 수준만 되었다면? 세월호 참사 같은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질없는 가정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 설혹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누구도 책임 지려 하지 않으면서 어느덧 국가는 사라지고 부도덕한 유명언 일가와 고립된 유가족의 모습만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선진국에서 그 정도 수준의 복지 지출을 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민주주의, 다양한 집단의 욕구와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구조, 높은 수준의 실존적 책임의식, 연대와 포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통합 구조 등 여러 요인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우리 사회 이기에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은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II 돌봄의 사회화 의미와 실태

제도 외형 수입에 치중하면서 근대국가로서 국민보호 기능 강화라는 복지국가의 본질은 외면하고 있던 모습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우리 현실에서 돌봄의 사회화가 갖는 의미와 실태는 무엇일까?

1. 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사회화는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그리 오래된 주제가 아니다. 산

업화 과정에서 탄생한 복지국가는 ‘남성 = 산업노동자, 여성 = 무보수 가사·돌봄노동 담당자’라는 성별노동 분리를 전제로 하였다. 흔히 복지제도 도입의 전제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은 실업, 질병, 노령,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을 의미하는데, 이는 남성 노동자 혹은 취업 활동자의 사회적 위험이었다. 반면 노동력 재생산은 여성의 몫이었다. 그래서 윌리엄 베버리지 William Beveridge는 영국 복지국가의 기본설계도가 된 베버리지 보고서² 117항에서 “향후 30년 간 영국의 이상을 충분히 지속하는데 어머니로서 가정주부가 결정적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여성의 무보수 가사·돌봄노동을 통한 노동력 재생산 비용 절감이 복지자본주의 체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이미 간파한 것이다. 결국 근대 복지국가는 남녀 간 성별노동 분리를 토대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국민보호 기능을 강화한 국가체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 고용불안의 일상화 Prekarisierung,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학적 변동’은 이른바 신사회적 위험 neue soziale Risiken을 등장하게 하였다. 신사회적 위험의 중요한 축은 산업사회 노동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고용불안이다. 전통적 복지국가는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고용안정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사회보험제도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취업 자체를 못하는 상황에서 실업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합쳐서 10년도 채우지 못한 연금보험이 노후 보장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신사회적 위험의 또 다른 축이, 그런데, 돌봄공백이다. 이른바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어들일 때 가족 내 무보수 돌봄노동을 담당하던 여성이³

2. 1942년 발간하였으며, 영국 뿐 아니라 유럽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모형 제공 역할을 하였다.
3. 전통적 복지국가 설계 과정에서 요양원, 어린이집 등은 그리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다. 여성이 노인과 아동 돌봄을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후기산업사회 고용 불안정 상황 때문에 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게다가 저출산 현상은 해당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 총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여성노동력을 통해 충원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 영역이었던 가족 내 돌봄노동의 공백이 생겼다. 그래서 단순히 신사회적 위험을 ‘고용 불안의 일상화 + 가족 내 돌봄노동 공백’으로 묘사할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 관점에서 여성노동력 동원이 중요해지고 가족 내에서는 돌봄공백이 문제가 되면서 돌봄의 사회화 이슈가 등장하였다. 그래서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en)의 표현에 따르면, ‘여성 취업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족이 규범이 되었으며 아동이 더 이상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는 혁명적 상황’이 도래하였다. 그런데 돌봄의 사회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서 부모의 지위가 세습되어 공공재로서 아동의 질이 떨어지고 여성의 취업·돌봄노동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저출산이 지속되는 ‘미완의 혁명(the incomplete revolution)’ 상황을 현재 후기산업사회 복지국가가 겪고 있다고 에스핑-안데르센은 그의 저서 『미완의 혁명(The Incomplete Revolution (2009))』에서 표현하고 있다.

2. 외면 확장만 치중한 돌봄의 사회화 실태

돌봄의 사회화를 가족정책 분야로 설명하면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육아휴직, 돌봄휴직 등 가족 대상 시간제공 정책이다. 둘째,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현금제공 정책이다. 여기에는 각종 수당이 있다. 셋째, 돌봄 자체를 맡아주는 정책이다. 시설제공 정책으로서 어린이집, 요양원 등이 이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돌봄의 사회화라고 하여 무조건 사회가 돌봄노동을 떠맡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이 돌봄노동을 선택하거나 혹은 사

회에 위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봄의 사회화는 가족의 선택 폭을 어느 정도 넓혀 주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 실태는 어떠한가? 먼저 필요성 측면에서 보자. 우리사회에서도 후기산업사회의 신사회적 위험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용불안의 상시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가족 내 돌봄공백은 이미 새로운 화제가 아니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여성 고용률 제고도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정책 이슈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복지제도의 외연 확장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보호 기능은 꺾이기만 보여준 소위 한국형 복지국가 맥락에서 돌봄의 사회화라고 다를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돌봄의 사회화 두 번째 실태이다. 시간제공, 현금제공, 시설제공 등 돌봄의 사회화 양상을 우리나라 가족정책에서 다 찾아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분야 전문가도 “이런 것을 언제 또 도입했나?” 할 정도로 많은 정책 내용을 볼 수 있다.⁴ 육아휴직과 수당은 물론이고 아버지 육아휴직을 유도한다며 이제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확대 추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그런데 왜 부모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들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가? 상대적으로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참여율도 왜 보잘 것 없는 수준인가? 늘어난 어린이집을 놔 두고 엄마들은 왜 이중부담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이 없다고 걱정하는가?

4.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하지 않는다.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많은 돌봄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있다.

외연 확장에 치중하는 흐름에서 여성의 돌봄·취업 이중부담은 정치적·정책적 차원에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여성사회참여 수준을 ‘세계화하는 맥락’에서 ‘WID(Women in Development)⁵, GAD(Gender and Development)⁶ 같은 개념들이 유행했다.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⁷, 성인지적 예산 등은 유럽학자나 관료가 어찌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책용어로서 자리를 잡았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이야기한다. 이 모든 변화의 밑바닥에는 5년짜리 대통령제의 한계, 불안정한 민주정치 구조와 이에 반비례하는 권위주의적 통치 문화, 뿌리 깊은 가부장제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신, 나중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거 공약, 대통령의 신념과 집권당의 분위기에 맞춰 정책을 만들어내는 관료사회, 평가 결과 내려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금 등이 여러 요소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가부장적 사고는 일단 뒤로 쳐두는 채 현란한 정책의 퍼레이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 가면 손에 물방

5. Women in Development(WID)의 번역어로 개발원조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발원조가 남성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개발의 담당자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개발에 있어서 젠더(gender) 격차를 극복하고자 하는 생각에 기초하여 정책면에서 도입된 개념(21세기 정치학 대사전).

6. 1985년 나이로비 UN 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그간의 여성발전 10년을 평가하고 여성의 발전과 정치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UN, 1995). 이를 위해 그간의 WID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이 GAD(Gender And Development) 전략을 채택하였다. WID가 여성의 참여증대와 이익도모를 통한 개발의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국한하였다면, GAD는 개발과정에 여성을 통합시킬 뿐 아니라 개발에서 여성의 주도력과 잠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성별 관계를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함을 촉구한다.

7.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실행·감시 및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데 있다. 성주류화의 과정은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 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을 포함한다(행정학사전).

울 한번 묻히지 않는 정치인, 언론인, 전문가와 관료가 성별노동분리 극복을 이야기하고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은 많이 만들어내지만,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아이를 데리러 팀장의 눈치와 아랑곳없이 달려가야 하는 엄마들의 고충은 숭고한 모성에 정도로 칭송되고 자연이 내려준 역할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는 변하지 않는다.

3. 성별노동분리 극복하는 돌봄의 사회화

가족에게 시간과 돈을 주고 시설도 만들면서 돌봄부담을 ‘분담’한다고 하지만, 그 때 가족은 사실 가족이 아니라 ‘여성’이다. 성별노동분리 극복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일어나는 혁명에 대처한다면 그것은 ‘미완의 혁명’에 그치게 된다는 에스핑-안데르센의 설명은 지난 수십 년 간 서구 복지국가들이 ‘산업사회 → 후기산업사회’로의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다. 아무리 많은 돌봄의 사회화 예산을 투여했지만 그것이 가족 내 성별노동분리 극복을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독일이 지난 2007년을 계기로 노르딕 국가식 성별노동분리를 지양하는 돌봄의 사회화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정책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돌봄의 사회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국민보호 기능을 통해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찾았던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 우선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돌봄의 사회화, 성별노동분리를 극복하는 돌봄의 사회화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III

보편적 복지로서 돌봄의 제도화

서구 복지국가는 국민보호 기능을 상대적으로 완성한 근대국가 체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의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신사회적 위협에 따른 새로운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 혁명을 완성하는 길로서 서구 복지국가는 가족이 아닌 여성의 이중부담 분담을 시도하였고 선택적 가족정책의 외연을 넓히면서 급여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아직도 미완의 혁명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은, 반면, 어떠한가? 복지제도의 외연 확장에 병행하는 제도의 질적 변화, 급여 수준 향상은 애시 당초 한국 정치·정책 지형의 주류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아니다. 같은 소득 수준일 때 내가 가진 돈의 최소한 1/3은 서로 돕고 사는 데 쓰는 것은 남의 집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게 지난 경제개발시대를 살아왔고 그렇게 정치, 경제, 언론 모든 분야를 장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를 통한 연대와 통합은 선거 때 잠깐 나오는 수사로 멈출 것이다.

게다가 과거에는 없던 여성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다 보니 마치 우리나라에 양성평등이 도래한 것처럼 요란을 떠난다. 심지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이야기한다. 개인적 사례나 일부 분야를 보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여성 법조인, 여성 교사, 여성 공무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평등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기회의 평등을 이제야 보장받은 여성의 움직임이 가시화됐을 뿐이다.

이 여성들도 취업·돌봄노동에서의 이중부담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땅의 여성들은 ‘출산과업’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돌봄비용을 지원하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저소득층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 중산층 여성들은 임신·출산과 돌봄

비용 때문에 비혼으로 머물거나 무자녀·한 자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제도를 통해 “국가가 나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해 주는구나.”라는 신뢰를 국민이 가진다고 상상해 보자.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를 배우자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잠시 대신 맡아줄 수도 있구나.”라고 여성이 국가를 대안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

보편적 복지가 무엇이고 돌봄의 사회화가 무엇인지는 지금 주류 정치인이 더 잘 안다. 그리고 “복지를 하면 경제성장을 해치고 사람들이 게을러진다.”라고 믿는 관료, 전문가, 언론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본인들이 더 해야 할 부담이다. 당장 잃어버릴 수 있는 표이다. 게다가 성별노동분리 극복이라는 명제는 감정상, 윤리상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보편적 복지로서 돌봄의 제도화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그래도 절차상 민주주의제도로서 선거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직접적 방법은 선거이다. 여성운동, 사회운동의 역할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 돌봄의 제도화’를 공론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선거 이슈화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 정당,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청장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고 이들이 다음 선거에 발돋움하지 못하도록 해 보자. 갈 길이 멀지만, 그야말로 한걸음 한걸음씩 가다 보면 국가와 사회를 믿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이 올 것이다.*

글을 쓴 정재훈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독일 트리어대학교(Universität Trier) 사회학과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사회정책 발달과 여성의 이해관계(Die Entwicklung der Sozialpolitik im Interesse der Frauen in der BRD)”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일했다. 2003년 이후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영화와 사회복지 등 강의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 독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론, 독일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돌봄사회로 가는 길을 찾아서

좌담회 : 돌봄 실천 현장의 소리

일시

2014. 10. 28(화) 9:30~12:30

장소

한국YWCA연합회 회의실

사회

김기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장

참석자

김영옥
안산YWCA 가사돌봄비

정애경
서울YWCA 세이프맘

김숙환
부천YWCA 산모돌봄회원

박정숙
서울YWCA 요양보호사

강성구
송파 누리미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박종균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미정
서울 거주, 가정주부

김기동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양한 돌봄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돌봄 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 어느 누구라도 돌봄이 없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생명을 살리는 돌봄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 그 역할 안에서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숙환 저는 부천에서 산모돌봄비로 12년째 있고 실제 활동한 것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정숙 저는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15년 했습니다.

이미정 저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남매를 둔 40세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요즘은 주부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규 저는 현재 성남에 있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고 작년부터 올해 4월 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강성규 성남에 있는 누리미지역아동센터에서 2009년부터 활동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한 곳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비행기 태워 세상을 구경시켜줄 수는 없어도 아동센터 안에 책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4천 권을 구비한 도서관을 만든 아동 활동가, 강성규입니다.

정애경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2년 전부터 YWCA에서 세이프맘이라는 좋은 직업을 찾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오전에는 부모님을 돌보고 1시부터 7시까지 세이프맘으로 아이를 돌봅니다.

김영옥 저는 가사돌보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한 지는 10여년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가사돌보미 강사로 일과 겸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말씀을 들어보니 돌보미로서의 경력이 다들 높으신데, 처음에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셨는지요?

강성규 저는 처음부터 아동활동가로 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출판업계에서 일을 하며 한국방정환재단이라는 곳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지금 제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지역아동센터의 작명을 부탁하면서 그곳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리미’라는 이름이 바로 제가 지었어요. 온누리를 아름답게, 온누리에 있는 자들, 뭐 그런 뜻이지요. 이름을 지어주었더니 계속 관심이 가더군요.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돌봄 종사자가 또 다른 돌봄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곳 아이들은 부모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아이들과 정을 쌓았는데, 센터장이 갑자기 그만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를 방치할 수가 없어 영접결에 제가 그곳의 센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기동 지역아동센터는 국가 돌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성규 이곳은 정부 예산, 서울시 예산, 지자체 예산이 5:3:2의 비율로 섞여 있는데 정부가 확실히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달 총 400만원으로 임대료부터 난방비, 차량유지비, 급식비, 프로그램비,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까지 다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종사자로서 먼저 아이들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뒤 결국 남는 돈으로 급여를 해결하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것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말이죠, 이렇게 쪼개다 보니, 돌봄 종사자도 또 다른 돌봄사각지대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김기동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돌봄 종사자가 또 다른 돌봄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지수준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김기동 YWCA는 1960년대부터 돌봄 직종을 개발하고 교육하여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일의 전문성을 통해 성취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돌봄 회원들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하여 YWCA에서 받은 교육 경험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돌보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률도 어마어마했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YWCA 간병인은 정말 하이클래스예요.”

김숙환 젊었을 때에는 삼성전자에서 기술업자로 일을 했어요. 조금 늦은 나이에
장남인 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7년 간 수발을 들
었고 시할머니, 그리고 아이들까지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생각하던 중, 부친
YWCA에서 가사돌보미, 요양보호사를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7
년 이상 수발되며 돌봄을 했으니 이 일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등록하
여 YWCA에서 석 달 교육을 받았어요. 가사돌보미, 산모돌보미, 간병하고 호
스피스, 다 교육을 받았어요. 석 달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
고 나니 일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를 하다가
산모돌보미를 했는데 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랬더니 산모들 사이에 인기
도 생기고, 산모들이 저를 꼭 집어 불러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박정숙 저는 남편이랑 사업을 했는데 IMF때 부도가 났어요. 막상 부도가 나고 해
야할 일을 찾던 중, 예전에 어머니가 중풍으로 입원을 하셨을 때 YWCA
간병인을 고용했었는데 너무 잘 돌봐주셔서 고맙기도 했고 나중에 나도
나이 먹으면 해봐야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올케
소개로 고양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석 달 동안 간병사 교육을 받았어
요. 정부에서 차비와 점심까지 대주면서 간호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
증까지 받았는데 아무데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단체나 협회가 인증하는
수료증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시청에 항의를 했었죠.

그리고는 할 수 없이 YWCA에 갔는데 YWCA는 아주 엄격해서 타기
관에서 받은 교육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Y에서 돌보미 교육
을 다시 받았어요. 그 당시 돌보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률도 어마어
마했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없으면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YWCA 간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조금 부당하게 느껴져요. 여느 직장에서 10년을 일했다면
승진하고 급여도 올라 갔을텐데, 10여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새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과 급여가 같으니 말이죠.”

병인은 정말 하이클래스예요. 근데 2~3년 전부터는 우후죽순으로 요양보
호사를 내보내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경력도 없고 인성교육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아져서 안타까워요. 하지만 저로서는 간병인 일을 해보니 저
랑 참 잘 맞고 그중에서도 YWCA 간병인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김영옥 저도 전형적으로 IMF의 타격을 받은 사람으로. 남편이 명퇴를 맞고 일손
을 놓게 되니 캄캄하더라고요. 20년 간 가정주부로만 살아와서 막상 일을
하려니 막막하기만 했는데, YWCA가 생명줄이 되어준 거죠.

저도 YWCA에서 가사, 간병, 아이돌보미, 반찬도우미까지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을 해보니 간병, 산모, 아기돌보미는 일이 분리되어있
지 않았는데 가사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서 가사돌보미로 결정했어요. 일
을 하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도 출가를 시켰고, YWCA에서 제2의 인생을
살다시피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김기동 IMF는 우리 사회에 정말 큰 타격이었지요. 얘기를 듣다보니 돌봄 종사사로
들어오는 계기가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김영옥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조금 부당하게 느껴져요. 여느 직장에서 10년을
일했다면 승진하고 급여도 올라 갔을텐데, 10여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새
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과 급여가 같으니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다보니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온 돌봄 영역을 제3의 인물, 즉 돌보미들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김기동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그나마 만만한 것이 가사, 돌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연 가사, 돌봄 활동이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박종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년 간 가정주부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1년 간 육아휴직을 하기 전까지는 가사와 아이 돌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간 가정을 돌보고 직접 아이들을 돌보다보니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 그래서 얼마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겠더군요. 아빠들도 최소 6개월은 돌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1년 간 쉬면서 받지 못한 급여와 빛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숙한 남편이 일을 접고 육아를 했다는 것이 참 돈보이네요. 남편보다 아내가 월급이 더 높아도 사회통념상 아내가 일을 포기하고 육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김기동 그렇죠. 가사와 육아는 엄마, 여성의 일이고, 바깥일은 아빠, 남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너무 강해요.

이미정 세대가 바뀌면서 요즘은 맞벌이가 대부분이고 가사도 남녀가 동등하게 하길 원하는데, 여전히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정주부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직장생활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너무 우울했어요. 내 생

활이 없어지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편은 밤에 들어오면 하루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 제대로 아이를 돌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은 남편도 많이 도와 주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 주니 좋아요. 남편들에게도 가정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기동 그런 점에서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다보니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온 돌봄 영역을 제3의 인물, 즉 돌보미들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돌보미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일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뿌듯하신가요?

정애경 세이프맘의 좋은 점은 어린이집이나 집단 돌봄에서는 상태에 따라 아이를 개별적으로 돌보기가 힘든데, 세이프맘은 1대 1로 아이 발달 단계에 맞춰 돌본다는 거죠. 세이프맘은 정해진 시간 동안 엄마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맡은 아이는 36개월 된 아이예요. 조금 까다로운 아이라 부모도 걱정을 했는데, 아이 수준에 맞춰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기다리며 잘 보살폈더니 지금은 마음을 열고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죠. 지금은 아이 수준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어요.

박정숙 저는 일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에 항상 보람을 느껴요. 무엇보다 건강을 회복해서 환자분들이 퇴원할 때 제 일처럼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일의 보람은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는데, 그걸 인정해 주시면 정말 기쁘죠.

김기동 아이를 돌보면서, 환자를 돌보면서, 가사를 돌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맞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임할 때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아이 돌봄을 하는 경우라도 세이프맘이신

정애경 선생님과 지역아동센터 강성구 관장님의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세이프맘은 임금을 보장받고 어느 정도 환경이 잘 갖춰진 곳에서 일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정부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임금도 해결하기 힘들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힘들기 때문인데요.

강성구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가, 아니면 복지도 개인 능력에 따라 시장에서 구입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의 부담을 면제하고 시작을 해요. 입소아동은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작용으로 아이들은 의존증이 보이고 자기존중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센터에서는 외부활동을 나가야 할 때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낼 수 있는 교통비 정도는 부담을 하게 하는데, 스무 가정 중 3~4 가정은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과 비협조가 아이들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김기동 여기 계신 분들은 돌봄을 위탁받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돌봄이 시장으로 나오면서 비용으로서 돈이 매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내가 위탁한 만큼 의뢰한 것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박정숙 네 맞아요. 한 번은 환자분을 열심히 돌보다가 밤이 되어 환자분이 주무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한 환자분이 보호자 없이 계셔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렸는데, 주무시고 계시던 제 환자분이 깨셔서,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는데 왜 옆 사람을 돕냐"고 호통 치시더라고요. 이때 정말 놀랐습니다.

김기동 그런데 과연 돌봄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일까요?

이미정 저도 바우처를 이용해 가사와 산모 돌보미를 다 이용해 봤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기 엄마한테 앞으로 안 와도 된다고 달랑 한 통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돈을 매개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모욕감도 느끼고 인격 모독이 느껴져서 정말 힘들었어요.”

는 많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이용자와 돌보미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숙환 저도 이런 불쾌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돌보미를 너무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산모 돌보미인데, 심지어 고모방까지 치우라는 등 가사일까지 다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봐야 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불평불만을 할 때도 많아요. '왜 돈 주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냐'라는 식이지요. 그럴 때는 너무 속상하고 후유증이 몇 달씩 가요.

김기동 돌보미를 고용하는 사용자 대부분도 여성인데, 이 일의 고충을 여성 스스로가 가장 잘 알면서도 돌보미에게 일을 시킬 때는 가혹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참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김영옥 결국 돈의 문제인 거죠. 돈으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시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사돌보미인데, 아기가 있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번은 아기 엄마가 잠깐 밖에 나가면서 아기를 봐달라고 해서 함께 앉아 있었는데, 너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졸음을 쫓고 싶어 TV를 켜는데 그 순간 엄마가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몇 시간 동안 TV 보고 놀았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이 집에는 그만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직장인니까 내일 직접 얼굴보고 전후사정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기 엄마한테 앞으로 안 와도 된다고 달랑 한 통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돈을 매개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모욕감도 느끼고 인격 모독이 느껴져서 정말 힘들었어요.

“돌봄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와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사회가 변함에도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기동 돌봄을 하찮은 일, 전문적이지 못한 일, 돌봄 종사자를 인격과 상관없이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돌봄 사용자와 사회 인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는데, 돌봄 노동 자체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박종규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별 문제 없이 가족이 가족을 돌봐왔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죠. 그런데 2008년 공적 장기요양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하면서 제도는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돌봄 주체와 역할에 대한 인식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돌봄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와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사회가 변함에도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Y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돌봄에 대한 당위성과 인식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동 올 한해 ‘YWCA돌봄포럼’을 하면서 ‘가사노동은 사회화 되어야 할 돌봄 노동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가사노동 자체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강성규 저는 딸이 셋 있는데, 육아휴직까지는 아니지만 셋째 가졌을 때 아내에게 1년 간 저녁시간 만든 셋째를 돌봐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은 다녔지만 저녁시간 소위 ‘사회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사회생활도 직장생활의

“저도 1년 간 육아휴직을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한테도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육아하려고 직장 때려치운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돌봄을 하찮게 여기고 여성이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이었죠.”

연장인 상황에서 참 많은 걸 포기해야 하더라고요. 돌봄 자체를 전문적으로 인식 하지 않고 애 키우는데 남편이 왜 관여해야 하느냐 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봄을 사회적으로 이론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YWCA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가정에서 육아하고 차세대를 키워 내는 일이 사회생활과 분리된 일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잘 읽어 낼 수가 있네요.

박종규 저도 1년 간 육아휴직을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한테도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육아하려고 직장 때려치운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돌봄을 하찮게 여기고 여성이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이었죠.

김기동 돌봄 사회를 만들고,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YWCA가 참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네요.

김숙환 제가 YWCA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할 때 선불제도를 하면 좋겠어요. 사용자로부터 갑자기 문자 하나로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라고 통보를 받으면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사용자 사정과 변심으로 오지 말라고 하면 저는 갑자기 일이 끊기게 되니 말이죠. 다시 일을 하게 되기까지 쉴 수밖에 없지요.

강성규 선불제도라 하면 일정한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뜻이죠.

“저는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돌보미 회원이 욕실 청소를 하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보험이 되어있지 않아 자부담으로 치료했어요. 그런데 일도 못하니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는 거죠.”

김기동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적 인습이나 법적으로 돌봄노동 자체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숙환 그래서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부천 YWCA와 성남YWCA에서는 안정적인 직업 형태를 고민하면서 지금 협동조합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돌봄을 협동조합으로 하면 4대 보험도 되고 그나마 안정적이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말 그대로 협동, 상부상조가 중요하더라고요.

김기동 돌봄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돌보미 스스로 자부심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옥 저는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한 돌보미 회원이 욕실 청소를 하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보험이 되어있지 않아 자부담으로 치료했어요. 그런데 일도 못하니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입는 거죠. 이렇다 보니 돌봄 회원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의지가 약해져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직장처럼 기본급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면 좋겠어요.

김숙환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월급에서 세금부터 내야 하죠.

박종규 4대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자기부담금과 사측 부담금이 있어야 하는데, 즉 돌봄이 활성화되면 돌봄노동자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세금에 대한 의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세금 나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

기지 않을 때 돌봄 활동도 인정받는 노동으로서 일반화되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보조, 즉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재원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강성구 또한 보편적 복지의 돌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국가의 제도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김기동 무엇보다 개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어디서든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박종규 돌봄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세금을 내고 4대보험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돌봄의 사회화를 말하는 곳에서 함께 나서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기동 다각적으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직업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돌봄 종사자들은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YWCA는 돌봄 회원을 알선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YWCA 운동을 함께 이끌어가는 운동회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돌봄의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강성구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치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기초적인 돌봄은 국가가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키우는 것이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애경 돌봄은 상호존중과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옥 돌봄은 가정을 살리고 행복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숙환 돌봄이란 가족입니다. 가족이 평생 지원군인 것처럼 돌봄은 서로를 지탱해 주는 평생지원군입니다.

박정숙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환자가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미정 저는 살피고 보살피는 돌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규 거칠어진 사회 속에서 돌봄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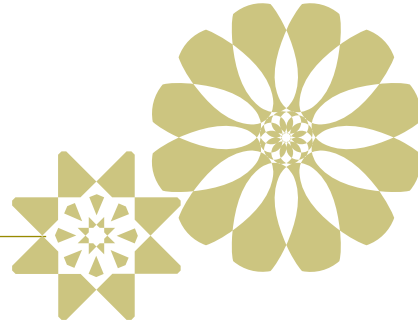
김기동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는 평화의 도구로서의 돌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 따뜻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가정과 사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봄은 가정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서로 돌봄이 필요하듯이, 돌봄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한 시급하다고 봅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돌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YWCA 돌봄직업훈련의 역사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1. 창립 초창기부터 시작된 직업훈련

한국YWCA의 역사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YWCA가 창립되던 1922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압제 속에 살아가던 때였으며 남성지배의 강압 속에 집안 살림을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만이 미덕으로 강요되던 시대였다. 이 당시 나라를 찾는 활동은 철저하게 탄압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신앙이라는 숭고한 정신을 앞세운 YWCA 조직만이 애국운동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비상수단이였다.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 세분의 기독교 여성선각자들은 불꽃같은 용기와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한국YWCA를 창설했다. 여성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며 자아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속한 가정생활을 향상시키는 생활계몽운동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으로 YWCA에서는 직업기술과 생활기술교육을 시켰다. 즉 1925년에 경성YWCA(현 서울YWCA)가 기청양재여숙(基靑洋裁女

1. 1935년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요리강습회
2. 1961년 서울 후암동에 건립된 '소녀의 집'



塾)을 설립, 백색 무명옷에 염색하기, 양재와 요리강습을 가르쳤고 양복실습반도 개설해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1920년대의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었고, 농업이 위주인 시대였다. 따라서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농촌주부들의 정신을 일깨워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농촌운동을 하던 최용신을 수원 샘골에 파견했고, 1932년 5월에 강습소 인가를 받아 농촌주부학교 '천곡학원'을 설립해 18~40세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바느질, 요리법, 세탁법, 염색 등을 가르쳤다. 최용신 간사는 이일에 전적으로 헌신해 농촌사회를 일으키는 역할을 했고, 소설가 심훈이 쓴 농촌계몽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으로 그려졌다.

YWCA활동은 일본의 강제침탈 후 1941년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YWCA활동은 1948년부터 다시 시작되었으나 곧이어 1950년에 일어난 6·25 동족상잔으로 YWCA는 부산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1952년 피난지 부산 동래 '농예원'에서 양재, 타이프, 농예, 재봉, 축산, 원예, 수예, 편물, 가내수공업, 요리 등의 기술을 가르쳤다. 동래 농예

원은 1948년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로부터 한국신교회를 통해 기증받은 것으로 부산Y에서 농촌부녀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의 장소로 쓰던 곳인데 한국YWCA연합회가 이를 위임받아 직업훈련장으로 사용한 것이다.

한국YWCA 창립 30주년이었던 1952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보면 동래 농예원 직업훈련 참가자 35명, 부산·대구·대전·순천YWCA가 실시한 4개의 야학교 242명, 서울·조치원YWCA 등 2개 양재학원에 57명, 8개 영어반에 84명, 2개 성경반에 35명, 2개 주간공민학교에 연인원 500명, 서울에서 열린 2개의 강습반(독일어, 타이프반)에 15명, 서울에 있었던 유치원에 75명이 참가했다.

1960년대 YWCA는 소외된 빈민가정의 소녀와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1961년 서울YWCA는 직업여성을 위한 숙소와 알선 사업을 위해 한미재단과 UNKRA(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단)의 원조로 서울 후암동에 '소녀의 집'을 건립하고 꽃꽂이, 요리강습, 미용체조 등을 가르쳤고 일어회화반, 영어회화반을 조직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광주YWCA는 1962년 보건 사회부의 허가를 받아 윤락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명여사'를 설립하고 미용기술 등을 가르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2. '시간제 가정부'로 돌보미 사업 시작

이렇듯 초창기부터 YWCA는 여성들에게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해왔다. 1960년대에는 한국의 산업화에 따라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직업에 대한 여성의 인식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게 되자 YWCA는 가정생활을 돕는 파출부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다. 서울YWCA는 1966년에 '시간제 가정부'를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 지금의 도우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서울YWCA는 1966년 12월, 도시의 영세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신원보증서,

주민등록 초본, 재정보증서 등의 서류를 갖춘 사람으로 한글을 알고 용모가 단정하고, 연락처가 분명한 20세에서 50세 미만의 여성을 선정해 일주일 동안 시간제 가정부 훈련을 실시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에 점심을 제공받고 1일 300원, 8시간이 초과하면 시간당 50원을 추가로 받았다.

1968년 서울YWCA 봉천동 사업관이 실시한 가정부 훈련반에 등록한 사람은 7명이었다. YWCA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예절(몸가짐, 말씨, 전화받기 등), 위생(청소, 설거지, 소독), 아기보기(우유상식, 방정리), 환자간호(음식, 침대정리, 환자 다루기), 차 끓이기, 김장, 알뜰한 부엌살림, 계절 요리와 전기기구 사용법과 관리법을 훈련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1970년에 2,549가정에 1,311명을 파출시켰다.

1972년에는 해외취업알선 업체로부터 가사보조원 교육을 의뢰받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저녁마다 2시간씩 13명을 훈련시켰다. 외국 가정과 미국에 보낼 가사보조원에게 5주간에 걸쳐 영어회화, 기구명 익히기, 전화 받는 법, 세탁에 관한 상식과 세탁기 다루는 법, 침대 정리하기, 냉장고 사용법, 청소도구 사용법, 꽃꽂이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훈련을 받은 가정부들은 자신감을 갖고 빠른 시일 안에 일의 능률을 올리는 등 낮은 생활환경에 잘 적응해 나갔다.

서울YWCA 파출부 알선사업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1970년에 전주, 1972년 대구, 1973년 춘천, 1974년 수원·인천·부산YWCA가 이 사업을 시작했고 1975년 대전, 1976년 광주, 1977년에 마산과 군산YWCA가 차례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파출부 사업을 시작한지 10년만인 1977년에는 12개 회원YWCA가 시작할 정도로 이 사업은 YWCA의 중심 사업이 되었다. 이 사업으로 부업을 갖게 된 인원은 1,164명이었고 1977년 12월 말에는 가정부와 이용자가 모두 YWCA회원으로 가입해 연간 회원증가만해도 4,424명에 달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1973년 가정부 보호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가정부를 둔 가정주부와 가정부 양쪽의 의견을 토대로 한 상호절충의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부 실태조사를 했다. 서울YWCA를 비롯한 12개 회원YWCA 회원 263명과 회원가정에 상주하는 1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부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과 이미 여러 회

원YWCA가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 가정부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전문화된 돌보미 사업

1977년엔 전국YWCA 파출부 실태를 조사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집 방법, 구비서류, 근무시간, 임금, 교육내용, 파출부와 회원들의 요구사항, 문제점을 파악했다. 가정부를 전문적으로 직업화하는 시점에서 시간제 가정부 외에 일반 가정부와 가정주부의 기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전개 하기도 했다.

아파트로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시간제 가정부는 상주하는 방법이 출퇴근으로 달라지고 출퇴근이나 시간제 근무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한 가정에 예속돼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직장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주부들에게는 구하기 힘든 입주 가정부 대신 필요할 때마다 훈련된 인력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시간제 가정부는 크게 환영받았다.

이 사업은 인력수급난에 봉착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파출부를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시켰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때부터 가정부는 ‘허드렛일’, ‘집에서 부리는 식모’, ‘주인집에 속해 고용살이’를 하는 주종관계, 주인을 상전으로 모시던 전근대적인 관습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인집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훈련된 가정부로서 하나의 직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파출부를 모집할 때마다 지원자는 YWCA가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훈련희망자는 대부분 영세가정의 주부가 많았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 여기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었다. 서울YWCA의 경우 일주일간의 교육을 통해 인간관계, 파출부로서의 자세와 책임, 가정보건, 산모간호와 아기 돌보기, 알뜰

파출부의 통합적인 교육을 위해 'YWCA 파출부 교육교재'를 제작, 파출부를 하나의 직업으로 정착시키는 기초 작업이 됨. 사진은 파출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지원자들의 모습.



한 소비생활, 전기기구 사용과 화재예방, 소방법,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위생, 응급조치법과 요리, 세탁, 청소, 알뜰한 가정주부와 현명한 소비자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쳤다. 파출부의 근무시간은 회원YWCA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오전 9시~오후 7시였고, 점심과 함께 시간당 1,000~1,300원까지 받게 되었다. 이는 10년 전인 1966년 1일 300원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엄청난 액수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파출부의 통합적인 교육을 위해 1966년에 'YWCA 파출부 교육교재' 발간과 함께 청소법, 세탁법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제작해 각 회원YWCA가 가정부 훈련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파출부 사업을 하는 회원YWCA는 이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자치적 활동을 위해 월1회씩 모임을 갖고 교양 강좌, 상호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 등으로 파출부들의 자질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파출부들은 YWCA회원이라는 긍지를 갖고 사용자인 주부에게 YWCA에 대한 소개를 하는 등 이들을 통해 YWCA에 대한 많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70년대 파출부 사업은 전국 26개 YWCA중 23개 회원YWCA가 이를 실시했으며 수요에 따라 외국인 가정에 파견하는 파출부, 환자돌보는 이, 요리사 훈련을 개발해 필요한 회원가정에 훈련생을 보냈다. YWCA파출부 훈련사업은 여성

의 사회적 요구와 여성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돼 노동부로부터 1984년 5월에 무료직업안내소 인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활발했던 파출부 교육이 점차 응모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198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8%가량 감소한 3,553명을 교육시켰다. 이때부터 호칭이 ‘가정부’에서 ‘파출부’로 바뀌었다. 이 당시 훈련생의 감소는 가사노동과 관련된 안이한 직업보다 좀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직업훈련은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다. 파출부라는 명칭도 ‘도우미’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처음에는 집안살림만 하던 것으로 시작된 도우미 직종도 산모도우미, 실버시터, 경증환자 도우미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직업은 인권의 한 부분이다. 직업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성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직업은 경제적 독립과 의식적 자립을 통해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성인으로서 본격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직업은 피보호자, 의존적 존재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획득을 의미한다.

4. ‘돌봄과 살림’으로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참여

우리나라는 그동안 빈곤계층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해왔는데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이제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사회서비스 역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진 요즘에는 일자리 창출이 우리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단체가 해오던 도우미사업도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8년부터 사회

서비스 선도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핵가족화 및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게 되자 정부에서는 이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확대 하면서 돌봄사업을 민간단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기업도 돌봄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로 YWCA는 도우미 회원들의 교육과 알선업무를 체계화시킴으로써 대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에 참여, ‘돌봄과 살림’사업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가는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직업경력이 단절돼 도우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중 고령층의 재취업을 위한 단순 직종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유함으로써 이들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법적보호와 권리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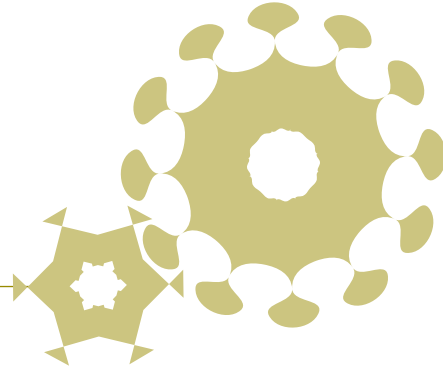
한국YWCA연합회는 YWCA돌봄사업이 단순한 사업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직업생애 설계를 통한 경제적 자립에 직결돼 있음을 인식하고 돌봄 회원이 여성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1년 ILO에서 통과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글을 쓴 차경애는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부터 대한YWCA연합회 공보출판부 간사로 일을 시작하였다. 1985년부터 직업개발위원회 간사와 부장을 맡으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신인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하였다.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과 부회장을 거쳐 2011년 회장이 된 후 현재 두 번째 임기를 맡고 있다. 여성지위와 권리향상,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청소년보호의 공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2005년)과 국민훈장 동백상(2013년)을 수상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YWCA 여성직업훈련, 의미와 전망

- 서울YWCA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김은희
서울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한국YWCA는 여성계몽의 가치를 내걸고 1922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계층이었던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을 지속해왔다. 한국YWCA의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직업교육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시대적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아는 것은 늘 가슴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과 발맞춰온 직업훈련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직업훈련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정립하여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YWCA의 여정에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발 맞춰온 YWCA 직업훈련

최상의 복지는 고용이라고 한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고학력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성인적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여성을 주 대상으로 고용환경의 변화와 고용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그리고 지속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역할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1993년 설립되어 여성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두고 직업교육훈련과 취·창업 을 연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지원해온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앞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보편적 고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태가 된 YWCA 직업훈련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고, 시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YWCA 직업훈련의 역사는 1855년 영국에서 시작된 YWCA 태동의 시대적 배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산업혁명 후 도시로 무작정 밀려들어오는 부녀자와 미혼여성들의 진로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숙사 시설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을 시작한 단체와 독실한 기도단이 연합하여 시작된 것이 YWCA 운동이다. 직업훈련은 YWCA 창립부터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2. 서울YWCA 직업훈련의 초기 역사: 경제적 자립에서 정서적 위로까지

YWCA의 창립은 한국 근대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 3·1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독립은 쟁취하지 못했지만 한국 여성사가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3·1운동이 실패하자 독립에 대한 열망은 더욱 타올랐고,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먼저 깨어나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미 선교사들에 의해 여성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단체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한국YWCA도 여성계몽의 횃불을 높이 들고 1922년 활동을 시작하

면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울YWCA 여성교육의 역사는 1924년 1월 모사편물 강습회를 열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명 내외의 가정부인들이 매주 화요일 회관(태화여자관)으로 찾아와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습을 받았다고 한다. 또 영어반에는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선교사의 지도로 강습을 받았다. 1930년 4월에는 직업여성클럽으로 '여점원클럽'을 조직하여 월 2회 모임을 갖고 친교를 도모하면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서대문회관 시절은 강습반 운영이 활발했다. 중국요리, 조화, 인형, 서양요리, 양재, 편물 등 다양한 강습반을 운영하면서 YWCA는 오늘날 평생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자녀들과 살길이 막연한 전쟁미망인들을 위해 조직한 재봉클럽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최초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현금을 지불하지는 못했지만 구호품인 밀가루, 의류, 식용품 등으로 생계를 돕고 바자를 열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환도 후 미망인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서울에서는 타이프 강습이 시작되었다. 두 대의 타이프를 활용하여 시간마다 순번대로 교육생을 지도하는 초라한 강습이었지만 이 또한 폐허 속에서 시작되었을 직업교육 역사를 보는 듯하여 한동안 흑백사진을 응시하게 된다.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절박한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이 되고 끼니를 해결해 주었을 사진 속의 타이프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고단한 삶 가운데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직업교육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라는 상념에 잠시 빠져들어 보았다.

미망인 사업은 불우한 부녀자들 특히 기독교인에게 기술을 지도하여 이들의 지위향상과 생활안정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여성가장 대상 훈련으로서의 역사성을 갖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미군PX 내에 공용매점을 설치하여 안정된 판로를 마련하여 서울YWCA뿐 아니라 각 미망인단체에서 납품한 물건의 판매액수에 따라 수익금을 배당받았다. 미망인사업이 늘어감에 따라 미망인사업관이 건립되었다. YWCA에

속해있다는 것은 전쟁으로 남편과 아이를 잃은 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식구를 거느릴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안도 받는다는 뜻이었다.

기술이 없어 취직을 못하는 16세 전후의 소녀들을 위해서 청년부에서는 청년 직업훈련을 시도하여 1957년 4월부터 영문, 한글타자, 부기법을 가르치게 되었다.

1966년은 '가정 부업 장려'를 YWCA 사업 중점으로 채택한 해였다. 가정 부업 장려를 실천하기 위해 주부들이 부업을 가져 생계를 돕고 자립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도 일자리가 없어 무의미하게 사는 것을 타개하기위해 시간제 가정부사업이 시도되었다. 이어 외국가정을 위한 가정부훈련, 미국에 보낼 가사보조원훈련, 요리사 훈련 등이 실시되어 도우미 사업의 근간과 서울YWCA 직업훈련 역사의 시작을 만들어가게 되며 드디어 1977년 6월 근로여성의 인식처와 배움의 터전인 근로여성회관이 개관되었다.

3. 근로여성회관 활동: 남성 직종에 도전하며 여성 직업의 새 장 열어

서울YWCA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대적 소외계층인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서울YWCA 92년 역사에서 1977년 근로여성회관 개관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의 대표적인 민간단체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받기에 이르게 된다. 근로여성회관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모체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으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많은 모델과 선형적 경험들을 제시하게 된다.

새로운 직종으로 전통적인 남성 직종에 도전하여 도배, 타일, 페인트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YWCA의 새 직종 훈련은 남성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서 직업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역

1	2
3	

1. 1977년 6월에 개관한 서울YWCA 근로여성회관
2. 1978년 노동부 인가를 받고 시작된 도배사훈련
3. 1993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시작된 여성인력개발센터



할을 하였다. 여성들의 직업영역을 확장시키고 어느 상황에서나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앞장서온 결과, 훈련을 받는 당사자 및 사회에 직업에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남성 직업 위주의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밖의 직업훈련으로 피부미용사, 귀금속공예, 장신구디자이너, 호텔미화부, 출장요리사, 직업상담원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배사, 출장요리사, 간병사 등 월례회 모임의 활성화는 회원들의 소속감과 자신감을 높이며 끈끈한 선후배 친교의 장으로서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YWCA근로여성회관은 1990년대 일하는여성의집, 2000년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의 바탕이 된다. 근로여성회관에서 시작된 여성 직업훈련의 역사는 전국 56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는 기반이 되었다. 그 가운데 YWCA는 27개의 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YWCA는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1993.7)과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구,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1998.12)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역할과 방향: 질 좋고 안정된 여성 일자리 개발

YWCA는 1992년 노동부로부터 '단기 직종의 여성직업훈련 실시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의해 1993년 노동부로부터 하여금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YWCA가 '일하는 여성의 집'을 지정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근로여성의 계속 취업과 기혼여성의 신규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산업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증대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직업훈련은 그 시대에 양산된 여성가장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실시되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지도와 직업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주체적인 여성으로 새로운 삶을 도전하도록 지원하였다. 훈련직종 수료 후 관련업체로의 취업 연계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취·창업 실적을 이루어내었다.

2009년 2월부터 시작된 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일자리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기존의 여성관련 교육 및 취업지원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센터당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 총 7명이 배치되었다. 기존시설 및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 외에는 별도의 운영지원금 예산 편성 없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단기간에 정착하는 사업이 될 수 있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입장에서는 인건비 예산부족 등으로 상담사 충원이 어려워 미흡했던 취업서비스를 새로일하기센터의 상담사 배치로 활성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출산·육아의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집단상담,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 일·가정양립지원, 찾

아가는 취업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영등포센터와 노원센터는 직업교육훈련 및 취·창업지원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을 취업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직업훈련(93개 직종 3,052명), 근로자 직무능력향상과정(41개 직종 784명), 사회문화교육 및 직종설명회, 일일특강에 2,965명이 참가하였다. 취·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주부인턴십 및 취업박람회를 진행하였고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일자리협력망 회의,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제공하였다. 훈련과정 개설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저소득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위탁받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직의욕 제고, 취업능력 증진, 개인별 집중 취업알선을 진행하는 맞춤형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취업지원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완해나가야 부분들은 산적해 있다. 우선 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들이 근무하는 직업군은 사무관련직, 영업 및 판매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방과후지도사 등의 교육 관련 직종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여성 근로자들이 주로 전문직이 아닌 저임금 노동시장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임금 일자리에서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증가와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대는 센터의 입장에서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20여년 간 여성취업 지원현장에서의 활동으로 쌓아온 위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관에 대한 법적 지위의 모호함과 분권교부세 종료 후 보통교부세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많아졌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본래 목적대로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운영 방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도 필요하다.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차원의 접근과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취업자의 고용유지 향상 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정된 직업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부 각 부처 간의 협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성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이다. 미래에 유망하고 취업 가능한 직종탐색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YWCA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을 통해 구직자 방문 시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연계, 고용유지, 사후관리, 일가정 양립 복지 지원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센터의 활성화와 더불어 종합적인 여성고용복지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5. 맺는말: 여성이 있는 현장이 희망이다

직업훈련분야가 추구하는 것은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각자의 직무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사회, 즉 능력중심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별, 단계별 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통해 능력중심 사회로 가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직업훈련분야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YWCA는 도배, 타일 등의 훈련을 통해 남성들과 동일 노동 후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을 기억하며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40%를 줄어나가는 일에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 센터는 훈련과정수료 후 취업연계를 위해 다양한 업체들과의 일자리협력망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업체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이직률이 높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근무조건이 같은가를 물어보면 당연히 임금구조가 다른 상황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임금구조에서 동일한 성과를 기대하는 기업들의 인식은 견고하다. YWCA는 변화를 위해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작은 걸음이 될지언정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서울YWCA는 여성대회, 박람회, 여성주간 등의 행사에서 바리스타 과정 수료생들이 직접 내린 커피를 판매하면서 동일하지 않은 가격대를 제시한다. 남성에게는 1,000원, 여성에게는 600원에 판매하여, 가격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40%를 알리는 캠페인의 장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다. 작은 몸짓이지만 인식하게 하는 것,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종들이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또 다른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회원과 여성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도 손을 잡아 주며 YWCA로 인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늘 해주시는 회원들을 만나게 되면 다시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게 된다. 지금은 연로하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도배사 회원이 계시는데 키가 유난히 작으시다. 처음 그분을 뵈었을 때 ‘어떻게 도배라는 직종을 택하게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분은 아침마다 기도드리며 현장으로 출근하곤 했다고 한다. “오늘 일하게 되는 가정집 천장이 높지 않기를...” 그 경험을 나눌 때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울컥한 마음이 되었던 기억이 있다.

YWCA의 직업훈련은 오래전부터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지금도 희망이며 앞으로도 희망이 될 것이다. 직업을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여성들, 잠시 멈췄던 직업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여성들, 직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여성들! 그들이 있기에, YWCA 직업훈련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YWCA 92년! 지난 역사 동안 내내 그러했듯이 다시 여성들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 희망을 만들고 나누고 퍼뜨리는 YWCA를 기대한다.*

글을 쓴 김은희는 숭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서울YWCA 근로여성회관, 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간사와 차장을 맡아 지역사회에 YWCA 자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4년부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맡으며 직업훈련 분야에서 주된 경력을 쌓아왔다. 그간의 성과로는 2007년부터 실시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6회 선정된 바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을 아우르다

제천YWCA 돌봄센터

정서연
한국YWCA연합회 운동국 간사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필요한 것은 바로 누군가의 돌봄이다. 국가와 세대를 막론하고 이 '누군가'는 보통 가족이 담당하였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만이 이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고, 이 빈 자리를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맡아주길 요청받고 있다. 돌봄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삶의 형태임을 감안할 때, 돌봄의 공백은 생명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생명을 영위해나가는 데 심각한 문제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생명력이 살아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제천YWCA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제천YWCA에서 류인숙 제천Y 사무총장을 만나 제천Y 돌봄 활동과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충북 제천시 화산동에 위치한 제천YWCA는 1986년 설립되었다. 제천YWCA는 뜻이 있는 몇몇 기독교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소모임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에는 제천시에서 재활용센터를 위탁받아 운영을 하였고 2000년에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2007년에 건강가정교육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천YWCA가 항상 관심을 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였다. 한국사회는 2005년 전후로 '저출산·고령화'위험에 대한 위기의식과 논의들이 확산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의 사회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 현재 제천시는 약 13만 인구 중 고령자가 약 2만 명, 15.8%가 고령자 비율로 집계될 만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도내 10만 인구' 이상의 도시 4곳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천시는 이미 지난 2008년 고령화비율이 14.4%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제천YWCA도 제천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변화에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되면서 제천YWCA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센터도 열어 교육원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가 센터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잘 시켰고 제천YWCA가 수급자와의 연락망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재가장기요양센터가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고 제천Y에서 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제천Y의 끊임없는 직무교육 덕분이다. 이는 제천Y가 돌봄 노동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 전문적인 일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다.



“제천Y는 돌봄 노동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고, 보수교육을 통해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요. 여성의 취업이 제한적인 제천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커리어를 개발하고 자격을 갖춰 관리하는 직으로도 가고 일부는 강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인의 성취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후배들은 도전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Y 요양보호사는 본인 스스로의 자부심은 물론 기관에도 애착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제천재가노인지원센터는 36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요양등급 대상 어르신 65명에게 신체수발, 가사도움, 개인활동, 정서지원서비스 등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과살림재가노인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단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요양보호사 22명이 34명의 재가노인 요양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2012년 전국 재가요양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매포에서 충주호나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3년 기간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천Y가 높은 성적으로 재수탁을 받아 운영을 하는 곳이다. 이곳은 충주댐 반경 5Km이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와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무료도시락배달, 주간보호서비스도 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도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요양등급 외 어르신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등급 조정 시 재가장기요양센터로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천YWCA가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천Y의 의지도 있지만 시멘트 산업이 가라앉으면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도·농복합도시인 제천의 특성상 노령의 인구만 남아있는 지역적 특성이 큰 요인이 된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서 제천YWCA는 돌봄을 지역적, 시대적 요청으로 읽어내었다.

2009년, 제천YWCA는 지구별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이는 제천Y가 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연 도서관이다. 특히 다문화여성들이 많

이 거주하게 되면서 이질적 문화와 차이를 경험하는 다문화여성 자녀들에게 맞는 돌봄이 필요했다. 지구별도서관에서는 도서대여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등돌봄교실인 행복공감별빛교실(복권기금지원)과 병행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의 부모에게 안전한 보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제천YWCA가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니 또 다른 지역의 어려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덕산 지역에는 귀농인구와 다문화여성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는데, 도시 아이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혜택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지 않는 것이 보였어요. 제천Y가 노인 돌봄에 대한 지역적 필요를 읽었던 것처럼 아이 돌봄에 대한 지역의 요구와 필요를 다시 한 번 절실하게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돌봄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시급해 보였기 때문에, 우선은 귀농한 분들 중에 교육을 많이 받고 의식 있는 젊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어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마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보육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수행파트너를 공모하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저소득층 가구 및 농산어촌에서의 보육 사각지대의 아동을 건강히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천YWCA가 공모 신청으로 당선이 되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 벽지지역인 덕산뿐 아니라 제천 시내의 소도시 지역인 화산면 두 곳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에서는 18개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농·산촌지역 및 다문화,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종일보육서비스는 물론, 공보육 이후 가정 보육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주중(오후9시), 주말(오후7시)까지 무료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울려 함께 할 수 있는 협동작업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아이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여성들이 많은 덕산 지역

돌봄센터에서는 엄마들에게도 한글 교육을 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개개인을 상담도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오히려 돌봄센터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을 하기도 한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가정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돌봄센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경험들을 만들어줄까를 항상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한 것으로 아이들과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은 프로그램에 항상 넣는다.

“한번은 에버랜드로 아이들과 소풍을 갔는데, 4남매를 둔 학부모님도 함께 동행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가족이 함께 하는 첫 번째 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경우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한 아이 엄마가 아이랑 꼭 같이 가고 싶다고 하여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 이 엄마가 아이랑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때의 여행이 딸하고의 마지막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돌봄센터의 나들이가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경험을 주는 것이지만 평소에 돌봄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에게도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선사해주는 것이다.

제천YWCA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취약계층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제천Y는 덕산과 화산 지역의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교사를 그 지역 여성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골 아낙들이었던 여성들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여 사회복지사와 보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당당히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다. 실제로 이 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자기 자녀들도 이 센터에 보내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천YWCA는 언제나 지역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맡아 돌보다 보니, 집에 가면 엄마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야간보호사업까지 시작하였다. 그래서 밤 9시까지 이 센터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제천YWCA가 아동, 노인, 여성 돌봄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돌봄 영역을 아

우르고 있다 보니 수요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

“한 여성이 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겼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마침 제천Y 요양보호사 모집기간이라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는 저희 돌봄센터에서 봐주니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부모님은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어서 저희 재가장기요양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엄마, 자녀 3세대가 바로 제천YWCA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가족일지라도 돌봄을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제천YWCA가 지역사회를 돌보고 아픈 곳을 보듬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생명감수성을 지닌 여성으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돌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 기관인 YWCA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돌봄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욕심 없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다가갈 수 있고 다 열려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YWCA의 정신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낮은 자를 돌보는 것이 제천Y의 마음입니다.”

제천YWCA는 다른 시민단체의 기준으로 보면, 시민사회단체인지, 사회복지기관인지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한다.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가 보이기만 하면 달려가는 곳이 제천Y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시민단체의 평가나 시선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제천Y는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연결시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제천Y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단체를 연결하기도 하고 다른 단체가 제천Y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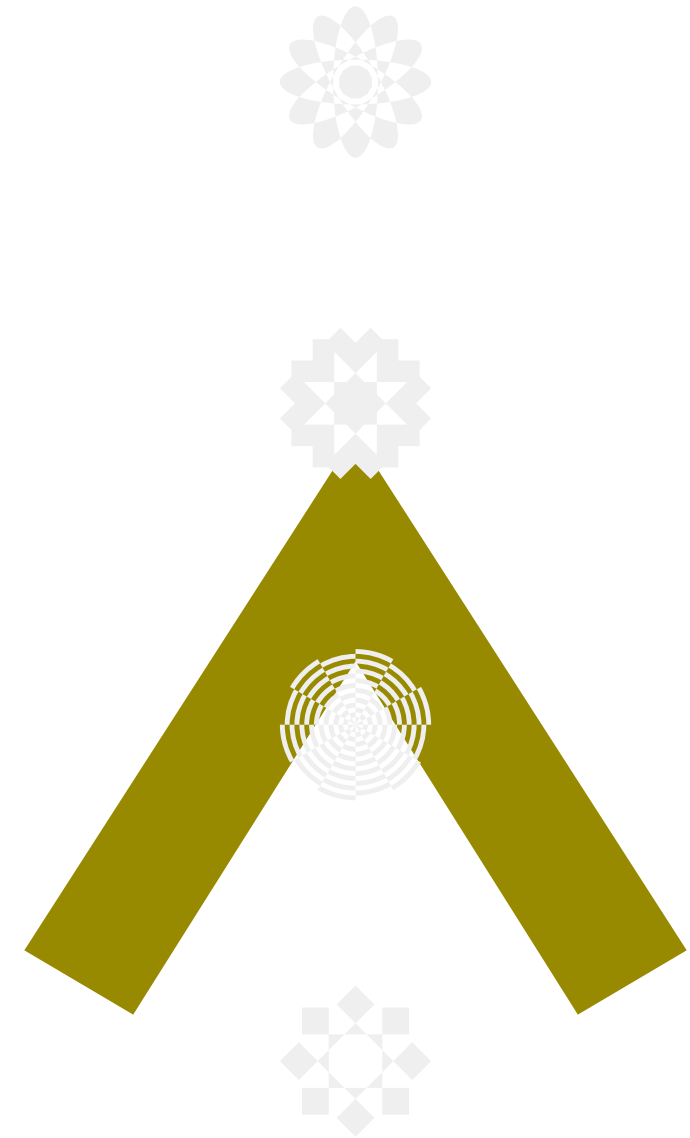
“작은 지역의 장점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만남을 통해 공동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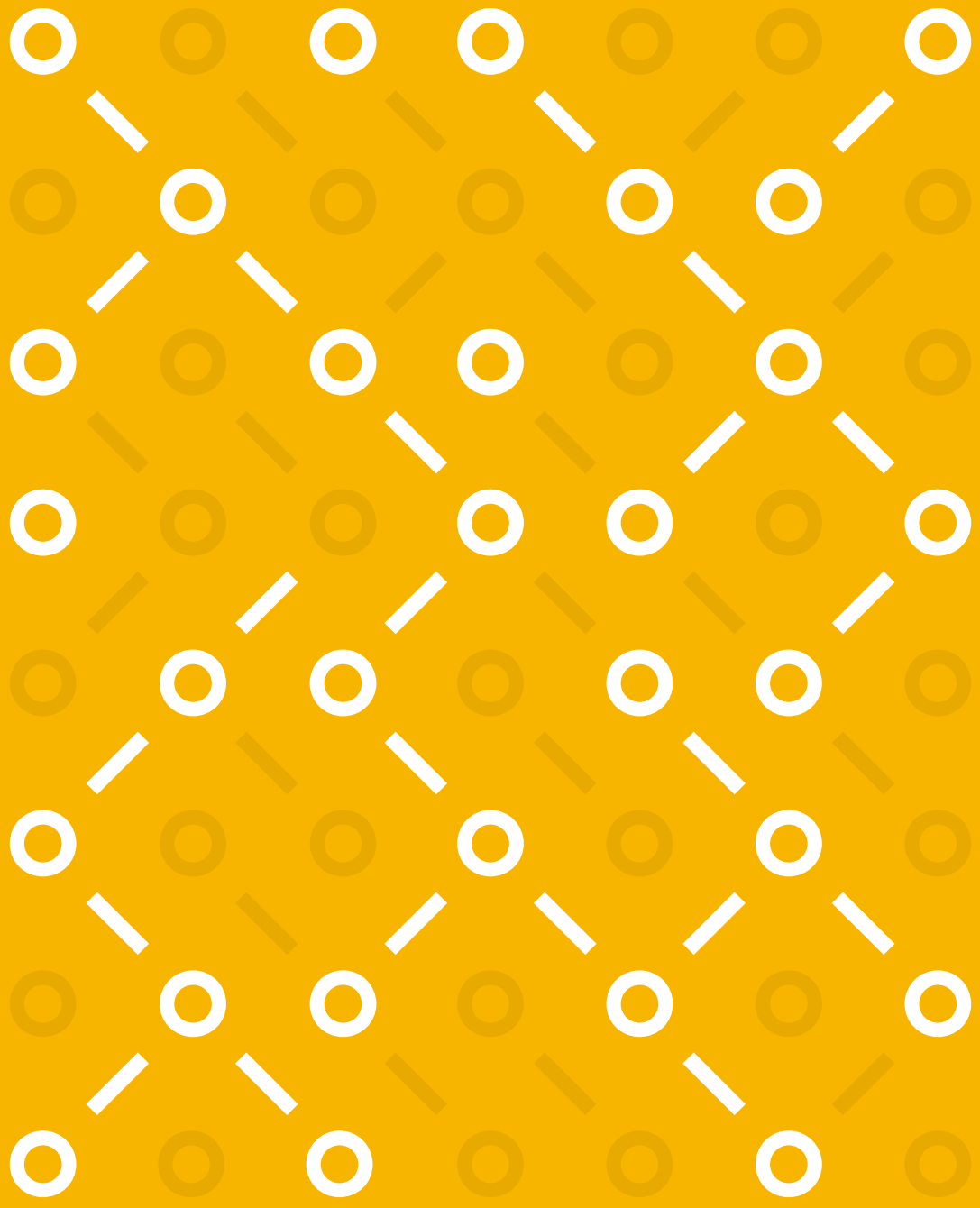
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우리 단체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는 이 일을 잘하고 다른 단체는 저 일을 잘하니 같이 만나 해보자, 이게 작은 지역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천은 고령사회이고 사회적 기반시설이 약한데 정부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니 이 자리를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을 실천하는 제천YWCA의 바람과 소망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돌볼 것인가이다. 누구나 다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더 앞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과 같이 공생하기 위한 섬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기 위한 나눔을 ‘돌봄’이라 말하는 제천YWCA다운 아름다운 소망이다.*

글을 쓴 정서연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했다. 2011년부터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팀 간사를 시작으로 올해 생명비전연구소에서 돌봄정의포럼을 기획하며 여성과 돌봄, 돌봄노동에 대해 고민하였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사)한국YWCA연합회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ISSN 2288-0254



9 772289 025005

정가 12,000원